



#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1	<b>행사 개괄</b>	01. 개최 배경	6
		02. 행사 개요	8
		03. 행사 주제 및 E.I	9
		04. 행사 일정	10

2	<b>추진 과정 및 성과</b>	01. 추진체계	14
		02. 추진과정	15
		03. 추진 성과 및 개선 과제	16

3	<b>프로그램 별 추진 결과</b>	01. 공식 프로그램	
		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46
		2.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	66
		3.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76
		02. 정례 프로그램	
		1. 아르떼 펠로우	89
		2. 전국 대학(원)생 문화예술교육 논문대회	90
		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서포터즈	91
		03. 지역 프로그램	92
		04. 한국-영국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94
		05. 전시	95

4	<b>대외 홍보</b>	01. 언론 홍보	102
		02. 온라인 홍보	108
		03. 오프라인 홍보	115

5	<b>별첨</b>	01. 설문조사 결과	124
		02. 서포터즈 활동 후기	130
		03. 참여하신 분들	131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 1. 행사 개괄

- 
- 01 개최 배경
  - 02 행사 개요
  - 03 행사 주제 및 E.I.
  - 04 행사 일정



# 01 개최 배경

##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공동 주최한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성공개최를 바탕으로 2011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 아젠다 : 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를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 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서울 아젠다’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개최한 5월 넷째 주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주도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이 선포된 이래 매년 5월 넷째 주, 각 국가별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이 함께 펼쳐진다.

###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2011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은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한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성공 개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11년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천 개의 시간, 천 개의 삶’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에서 컨퍼런스, 워크숍, 거리공연 등 100여 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 2012 제1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2012년 5월 2일부터 26일까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를 열었다. 또한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도 유네스코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 2013 제2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2013년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를 열었다.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387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 2014 제3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기념하여 2014년 5월 18일 부터 24일까지 문화역서울 284를 거점으로 서울 및 전국 각지에 총 303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딛고 일상을 다시 일으키는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며 다독이는 소소한 축제의 장이 되어 국민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 2015 제4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이 개최된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경상권)을 중심으로 개최하여 지역과 지역민의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2015년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부산을 거점으로 부산 원도심(중구)을 비롯해 해운대에 이르기까지 지역 전반을 아울러 경상권은 물론 기타 지역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까지 이루어 냈다.

### 2016 제5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6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상암동 디지털시티 일대에서 정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을 도모했다. 또한 다양한 층위의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행사의 지속성 및 인지도를 강화했다.

# 02 행사 개요

## 2017 제6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 행사명**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 일시** 2017. 5. 24(수)~27(토)
- 장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블루스퀘어 일대 및 각 지역 문화기반 시설 등
- 대상** 문화예술교육 참여 주체, 관계자, 전문가 및 일반 시민 등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홈페이지** www.arteweek.kr



# 03 행사 주제 및 E.I

## 행사 주제 2017 제6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문화예술교육  
신념과 상상, 기쁨을 말하다

제6회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는 예술경험의 행복으로 세상을 채우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국내 컨퍼런스와 워크숍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 교류·학습의 장을 펼칩니다.

**핵심가치** 창작, 작업, 창의성, 확장, 대상, 관찰, 소통, 변화, 역할

### 추진방향



## Event Identity



# 04 행사 일정

## 5. 24(수)

### 2017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시 간	내 용	발제자
14:00-14:05	오프닝스피치	예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내 삶에 찾아온 변화 부이 아잉 응웻 (베트남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참여 학생)
14:05-14:20	발제 1	예술교육가: 날개를 달아주는 자 알바로 레스트레포 (콜롬비아 몸의학교 설립자 · 교장)
14:20-14:35	발제 2	일상과 예술의 연결고리 천정명 (한국 사다리연극놀이아카데미 교장)
14:35-14:50	발제 3	음악적 교감: 소리, 상상력, 감성 그리고 예술성 베스 볼튼 (미국 템플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
14:50-15:05	발제 4	행복한 만남: 시각예술에서 창의적인 배움의 장 만들기 안나 커틀러 (영국 테이트미술관그룹 교육 총괄)
15:05-15:20	휴식	
15:20-16:50	토론	제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겸임교수) 노주희 (한국오디에이션교육연구소 대표) 김병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교수) 김세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교육기반본부장)
	16:50~18:00	질의응답 및 폐회

## 5. 25(목)

### 2017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

시 간	내 용	장 소	
10:00-10:30	등록 및 접수	공간 네모 앞	
10:30-10:45	개회 및 축사		
10:45-11:15	[기조연설] '문화로서의 예술'에 대한 교육의 시선 주성혜 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11:15-11:35	[특별강연] 예술, 우리 삶의 설탕 한 스푼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정진, 『피아노 치는 변호사』 저자)	카오스홀	
11:35-11:40	오후 세션 안내		
11:40-13:00	점심시간		
13:00-17:30	[예술가치의 공감, 문화예술교육 방법론 탐색을 위한 6개의 주제]		
	주제 1	13:10~17:10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극, 연기, 영화 교육 방법론의 미래 과제 (한국연극교육학회, 한국연기예술학회, 한국영화교육학회)	카오스홀
	주제 2	13:10~17:30 예술가 참여, 문화예술교육의 힘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한국문화교육학회, 한국사진교육학회)	아트파크
	주제 3	13:10~15:10 테크놀로지와 예술교육 (한국예술교육학회)	공간 네모 1층
	주제 4	15:30~17:30 음악교육의 창의적 확장을 위한 역량과 방법 모색 (한국음악교육학회)	
	주제 5	13:10~15:10 문화예술교육의 국가적, 시대적 가치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공간 네모 2층
	주제 6	15:30~17:30 미래예술교육을 위한 창의적 방법 탐구 (한국조형교육학회)	
	전국 대학(원)생 문화예술교육 논문대회	북파크 다원룸	
17:30-18:40	[종합토론] 6개의 주제 방 결과 공유: 6명의 좌장	카오스홀	
18:40-19:00	[폐회] 논문대회 시상식 및 폐회		

## 5. 26(금)

### 2017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시 간	프로그래밍(분야)	예술교육자	참여자	장 소
16:00-18:00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음악)	베스 볼튼 (Beth Bolton)	영유아(3~5세) 및 매개자 40명	아트파크
13:00-14:30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만나기(연극)	신선영, 김정현	매개자 40명	
14:45-16:15	공간 채우기 프로젝트 (연극)	이윤미, 유은정, 유용세	초등 3~5학년 20명	공간 네모 1층
16:30-18:00	너에게 심표를 줄게 (문학)	운동희	매개자 40명	
14:00-15:45	음악노트 Musicnote (음악)	이의정	매개자 20명	공간 네모 2층
16:00-18:00	나무작업, 나무에 흐르는 시간 (목공)	남머루	매개자 20명	
14:00-15:00	나의 조각, 우리의 작품: ME WE (미술)	구수현, 김채린	매개자 20명	공간 네모 3층
15:30-16:30	빛나는 초상화 (사진)	전현구, 김태훈	초등 3~5학년 20명	
14:00-18:00	아르떼 펠로우 심사	1차 심사 합격자	매개자 및 일반시민 150명	카오스홀

###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지역프로그램

지역	일정	프로그램명	장 소	참여대상
서울	5.27(토) 10:00~18:00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문화예술 명예교사 프로그램, 2017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일반시민
	5.27(토)~28(일)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로 놀장'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 광장	아동·청소년, 가족 등
세종	5.27(토) 13:00~18:10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2017 한국문화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일반시민
	5.26(금) 14:00~17:00	세종문화예술교육 포럼	세종시문화재단 대회의실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및 단체, 기관 담당자
광주	5.27(토) 11:00~17:00	세종문화예술교육 현장 체험 프로그램	세종호수공원 중앙광장 일원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기관 담당자, 일반시민
	5.26(금) 10:00~18:00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콜롬비아 <몸의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동·청소년 및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경상	5.27(토) 10:30~15:00	2017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프로젝트 맵핑처럼 사고하기(신남전기) 나의 조각, 우리의 작품:ME WE(구수현, 김채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동·청소년 및 가족
	5.23(화) 14:00~19:00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창원대학교 NH인문홀	예술가 및 창원대학교 학생, 일반시민
제주	5.23(화)	경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 · 단체 워크숍 '아이디어가 꽃피다'	블루닷 (경북 칠곡군)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및 단체
	5.21(일) 11:00~16:00	'꿈다락! 노는게 예술이네~'	(구)제주영화문화 예술센터 광장	일반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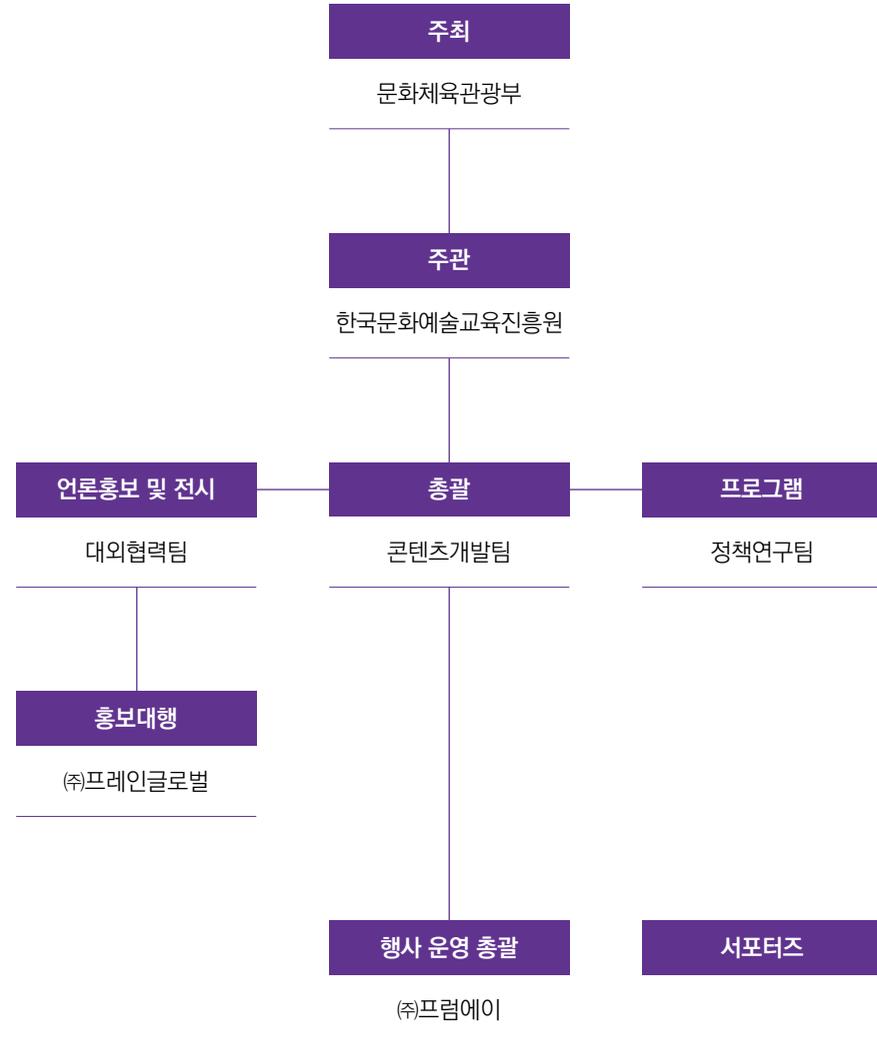
# 2.

## 추진 과정 및 성과

- 
- 01. 추진 체계
  - 02. 추진 과정
  - 03. 추진 성과 및 개선 과제



# 01 추진 체계



# 02 추진 과정

추진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1-4주	
행사 추진 계획 수립 및 보고	■																				
내부 조직 행사(안) 공유	■																				
행사 기획 자문		■	■	■	■	■	■	■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		■	■	■	■	■	■														
착수 보고								■													
행사 슬로건 개발 및 BI 디자인						■	■	■	■												
기획 프로그램 세부 계획 수립						■	■	■	■												
학회 세미나 수요조사							■														
서포터즈 공모																			■		
프로그램 선정 및 준비																			■		
프로그램 참여팀 모집 및 사전 제작																			■		
논문대회·아르떼 펠로우 공모 진행 및 서류 심사																			■		
홍보물 제작/배포																			■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		
언론매체 홍보																			■		
주요 내빈 초청장 발송 및 참석확인																			■		
행사 운영 계획 수립 및 점검																			■		
행사장 착공																			■		
행사 개최																			■		
행사 개최결과 보고 및 정산																			■		

# 03 추진 성과 및 개선 과제

## 주요 프로그램 별 참가자 수

일자	구분	세부 프로그램명 / 주제	참가자수
5. 24 (수)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문화예술교육 신념과 상상, 기쁨을 말하다'	453명
		<b>총 453명</b>	
5. 25 (목)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	[기조연설] '문화로서의 예술'에 대한 교육의 시선	240명
		[특별강연] 예술, 우리 삶의 설당 한 스푼	
		[주제 1]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극, 연기, 영화 교육 방법론의 미래 과제	192명
		[주제 2] 예술가 참여, 문화예술교육의 힘	113명
		[주제 3] 테크놀로지와 예술교육	46명
		[주제 4] 음악교육의 창의적 확장을 위한 역량과 방법 모색	52명
		[주제 5] 문화예술교육의 국가적, 시대적 가치	29명
		[주제 6] 미래예술교육을 위한 창의적 방법 탐구	28명
		<b>총 460명</b>	
		5. 26. (금)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만나기	25명		
곳간 채우기 프로젝트	20명		
너에게 심표를 줄게	30명		
음악노트 Musicnote	20명		
나무작업, 나무에 흐르는 시간	20명		
나의조각, 우리의 작품: ME WE	20명		
빛나는 초상화	14명		
아르떼 펠로우 최종 심사	130명		
<b>총 317명</b>			
5. 27 (토)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시민참여)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베스 불튼)	12명
		문화예술 명예교사 안은미 '무무(舞無) 댄스!!'	42명
		문화예술 명예교사 왕춘호 '상상을 놀이하다'	22명
		곳간 채우기 프로젝트	15명
		일상예술가와 함께하는 일상그리기	17명
<b>총 108명</b>			

일자	구분	세부 프로그램명 / 주제	참가자수
5.26(금)	광주 지역 프로그램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몸의학교>	75명
5.27(토)		2017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신남전회> 외	40명
5.23(화)	경북 지역 프로그램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350명
5.23(화)		경북 문화예술교육 운영기관·단체워크숍	50명
5.27(토)~28(일)	서울 지역 프로그램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로 놀장'	3,547명
5.27(토)		2017 한국문화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122명
5.26(금)	세종 지역 프로그램	세종문화예술교육 포럼	58명
5.27(토)		세종문화예술교육 현장 체험 프로그램	4,500명
5.21(일)	제주 지역 프로그램	꿈다락! 노는게 예술이네~	200명
<b>총 8,942명</b>			
<b>전체 참가자 총 10,280명</b>			



## 03 추진 성과 및 개선 과제

### 추진 성과

#### • 전문성이 강화된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 예비인력 등을 중심으로 한 지식, 정보, 학습의 장으로서 주간행사의 대상과 성격을 조정한 만큼 이전보다 전문성이 강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국내외 전문가 참여 국제심포지엄, 예술강사 및 예술교육자 콘텐츠 시연, 학술세미나, 전문가초청 워크숍 등 국내외 문화예술교육의 변화와 흐름을 읽고 현장 중심의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주체 참여 유도

심포지움, 컨퍼런스, 워크숍, 전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회 및 정책 관계자뿐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를 나누고자 하는 예비인력과 관심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 • 2017 주간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 추진

주간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 홍보 관련 DB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온라인 확산에 최적화된 콘텐츠(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배포, 행사 홍보 영상, 젊은 예술가 인터뷰 영상 등)와 오프라인 콘텐츠(문화예술 관련 대학 홍보 등)를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사전 홍보를 진행하였다.

#### • 거점 공간 선정 및 활용으로 행사 접근성과 효율 확장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쉬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블루스퀘어를 거점 공간으로 지정해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접근성 및 집중도가 향상되었고 같은 시간대 동일장소에서 네트워크형의 다양한 세션에 참여할 수 있어 행사의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 • 문화예술교육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협력 토대 마련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논문대회, 학회 연계 컨퍼런스)과 문화예술교육 활동가(아르떼 펠로우 공모,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한자리에 모여 양질의 연구와 더불어, 신진연구자 및 활동가를 발굴하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개선 과제

#### • 참여자의 수요와 추가적인 운영 필요

프로그램별 참여자를 사전 신청으로 모집하였으나 조기 마감되어 참여 희망자들의 인원 증설 요청이 있었다.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세션은 추가 신설 혹은 시기적 1차, 2차 모집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 주간행사의 정체성 확립 및 국내외적 위상 제고 필요

정책공감을 위한 대국민 축제형 행사 또는 관계자의 학습, 소통 플랫폼이 되는 네트워크 행사 중 정체성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국민 축제형 행사라 할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에 따라 상시적, 적극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는 매우 많으므로 중앙 주도로 특정 장소에 행사를 구성하고 일반인 참여 위한 체험 행사를 강화하는 과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동원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관심자들에게 찾아가는 콘텐츠가 필요하며 주간행사의 콘텐츠 자체, 접근방식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

#### • 문화예술교육 주체 중심의 추진체계 마련

진흥원 주도의 프로그램 기획을 넘어 광역센터 관계자, 예술강사, 문화예술 교육사 등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기획단계부터 결합하여 행사를 보다 풍성하고 활기차게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 참여자의 수요와 추가적인 운영 필요

프로그램별 참여자를 사전 신청으로 모집 하였으나 조기 마감되어 참여 희망자들의 인원 증설 요청이 있었다.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세션은 추가 신설 혹은 시기적 1차, 2차 모집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3.

## 프로그램 별 추진 결과

###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 01. 공식 프로그램

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2.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
3.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 02. 정례 프로그램

1. 아르떼 펠로우
2. 문화예술교육 전국 대학(원)생 논문대회
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서포터즈

#### 03. 지역 프로그램

#### 04. 한·영 라운드테이블

#### 05. 전시

“ 문화예술교육  
신념과 상상, 기쁨을 말하다 ”

The Purpose, Inspiration and Joy of Arts Education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2017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예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  
내 삶에 찾아온 변화

Observing the World like an Artist : The Changes in My Life



작은 뷰파인더로 바라본 세상은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변화들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작고 소박한 것로부터 비로소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동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소주민족 사람들, 오토바이 택시아저씨...  
사진 찍을 때 가장 기쁜 순간은 그들의 아름다운 웃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바라본 웃음과 눈빛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면 카메라를 들고 동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사진을 통해 그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만의 포토폴리오도 만들었습니다.  
카메라는 제 생각과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장난감입니다.

하루는 옆 마을 친구들에게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며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쑥스러워했던 제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 가장 기쁜 순간은 그들의 아름다운 웃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바라본 웃음과 눈빛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택한 촬영 주제는 대부분 '소수민족 사람들' 입니다.  
사파는 베트남 산간 지역으로 6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부이 아잉 응웻 **Bùi Ánh Nguyệt**  
베트남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참여 학생

행위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이 ‘예술’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으로,  
우리사회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목표의식을 공감할 때,  
문화예술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주성혜 Sung-hye Joo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 예술교육가 : 날개를 달아주는 자

The Artist Educator : a Wing-Maker

### PLA-SER 즐거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일하고 그 것만 하는 것”

### 교육자의 역할

안내자, 지도자, 양육자, 날개를 달아주는 자, 매개자, 멘토

### 교육의 역할

잘못된 체제, 빠른 단념, 포기, 획일성, 평범함, 좌절에 저항하는 교육

###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감을 주는 사람’

예술가의 임무는 ‘예술세계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눈과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

알바로 레스트레포 Álvaro Restrepo

콜롬비아 몸의학교 설립자

## The Famished Road 굶주린 길

by Ben Okri  
벤 오크리 작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river.  
태초에 강이 있었네.

The river became a road.  
강은 길이 됐고

And the road branched out to the whole world.  
길은 온 세상으로 뻗어나갔지.

And because the road was once a river it was always hungry.  
그리고 길은 한때 강이었기에 늘 배가 고팠네.

In that land of beginnings spirits mingled with the unborn.  
그 태초의 땅에서 영혼은 움트는 생명과 어우러졌고

We could assume numerous forms.  
우리는 수많은 형상을 취할 수 있었지.

Many of us were birds.  
우리 중 많은 이는 새였네.

We knew no boundaries.  
우리는 경계(境界)라고는 몰랐지.

There was much feasting, playing and sorrowing.  
끝없는 향연을 펼치고, 즐거워하고, 비탄했네.

We feasted much because of the beautiful terrors of eternity.  
영원의 아름다운 공포 속에서 향연을 펼쳤네.

We played much because we were free.  
우리는 자유로운 만큼 즐거웠지

And we sorrowed much because there was always those  
amongst us who had just returned from the world of the  
Living,  
그리고 우리는 산 자들의 세계로부터 온 이들을 보고 비탄했네.

They had returned inconsolable  
그들은 위로 할 수 없을 만큼 상심해서 돌아왔지

for all the love they had left behind,  
그들이 두고 온 모든 사랑,

all the suffering they hadn't redeemed,  
그들이 청산하지 못한 모든 고통,

all that they hadn't understood,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모든 것,

and for all they had barely begun to learn  
겨우 배우기 시작한 모든 것 때문에

before they were drawn back to the land of origins.  
그들은 기원(起源)의 땅으로 상심한 채로 다시 돌아왔지.

There was not one amongst us who looked forward to being  
born.  
태어나기를 기대한 이는 우리중 하나도 없었네.

We disliked the rigors of existence,  
우리는 존재의 무서움이 싫었고

the unfulfilled longings,  
충족되지 못한 갈망,

the enshrined injustices of the world,  
세상의 안치된 불의,

the labyrinths of love,  
사랑의 미로,

the ignorance of parents,  
부모의 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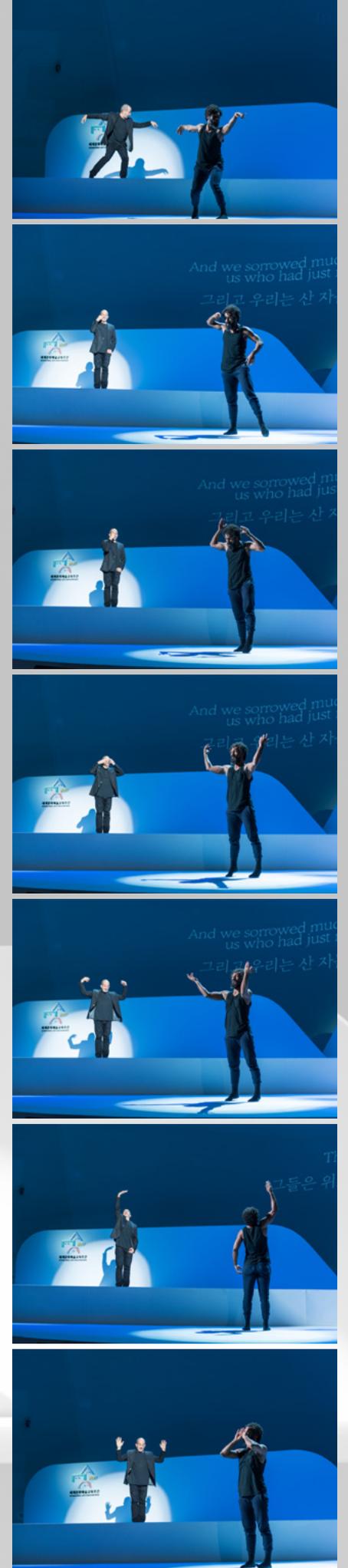
the fact of dying,  
죽어간다는 사실,

and the amazing indifference of the Living in the midst of the  
simple beauties of the universe.  
그리고 우주의 근원적 아름다움 앞에 산 자들의 놀라운 무관심이  
싫었네.

We feared the heartlessness of human beings,  
우리는 두려워했지, 인간의 무정함을.

all of whom are born blind,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나

few of whom ever learn to see.  
끝내 보는 법을 알지 못했네.



## 일상과 예술의 연결고리

Connecting Everyday Life to Art

## 일상과 예술의 연결고리

놀이연극 “알”은 유아와 부모가

동그랗게 둘러앉아 ‘보기도 하고,

참여도 하는’ 놀이연극입니다.

관객들은 엄마를 찾아 떠나는 알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알을 상징하는

소품인 ‘공’을 배우들과 주고받는

놀이로 시작하고, 마지막엔

유아관객들이 원 안으로 들어와

배우의 해설을 들으며 모두 알이

되었다가 알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 예술교육자

연극놀이와 놀이의 차이점은 수업을

구성하는 교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연극놀이 교사는 참여자들이 발견하거나

이해할 것을 수업목표로 설정하고

연극과 놀이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구성합니다.

연극예술이 연출가, 연기자,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이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기획

하고 연습하여 잘 다듬어진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이는 공연(production)

중심이라면 연극놀이는 누구나 과정을

안내하는 교사와 함께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자신의 몸과 언어로 표현하거나

살아보는 ‘과정(process) 중심의 연극적

활동’입니다.

## 예술교육자에게 필요한

### 역량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술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처럼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신과 주변에 대해 발견하며,

예술의 은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삶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천정명 Jeong-myeong Cheon**

사다리연극놀이아카데미 교감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음악적 교감 :**

소리, 상상력, 감성, 그리고 예술성

Musical Engagement: Sound, Imagination, Emotion, and Artistry

노래에는 다양한 감정이 개입됩니다.  
음악은 청각을 이용하는 사회적 예술입니다.

예술교육이란  
감성을 나누며,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며,  
창의성은 새로운 생각, 방식, 이해, 행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베스 볼튼 Beth Bolton**  
미국 템플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



IMAGINATION

MUSICAL ENGAGEMENT

SOUND

ARTISTRY

AUDITION

EMOTION



2017  
문화예술교육주간  
CULTURAL ARTS EDUCATION WEEK

INTER  
ART  
E

## 행복한 만남 :

### 시각예술에서 창의적인 배움의 장 만들기

Joyful Encounters : generating the conditions for creative learning in the visual arts



##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안나 커틀러 Anna Cutler**  
영국 테이트미술관그룹 교육 총괄

예술을 자유롭게 체험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생각과 풍부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예술속으로 초대하세요.  
예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 Artist as creative learner:

- Invite complex affect
- Structure relational interactions that generate experiences in which the participants take ownership
- Exploring the ideas through the senses doing/making
- Take risks
- Use imagination to ask 'what if?'
- Invite and challenge ideas
- Producing a valued outcome (often within a set time)

2017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토론



세계문화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무엇보다 자신과 이웃을 창의적인 인간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알바로 레스트레포

창의성이란 새로운 생각, 방식, 이해, 행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입니다.

-안나 커틀러

예술교육자는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예술을 시도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며 예술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베스 볼튼



**제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겸임교수



**노주희**

한국오디에이션교육연구소 대표



**김병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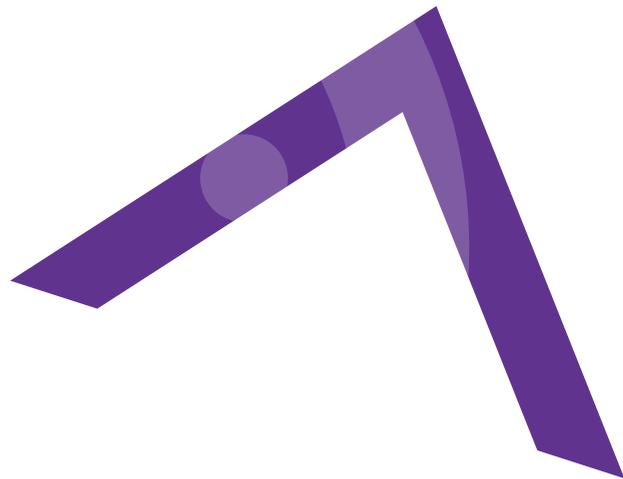
**김세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교육기반본부장





# 01 공식 프로그램



# 01-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주제** 문화예술교육  
신념과 상상, 기쁨을 말하다

**일시** 2017. 5. 24(수) 14:00-18:00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2관

**대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관계자, 일반 시민 등 453명

### 주요내용

예술가이자 예술교육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 예술교육에 대한 이들의 확고한 신념과 방법론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창작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술가적 관점이 다양한 맥락의 예술교육현장을 만날 때 일어나는 특별한, 새로운 대상과 소통하고 다양한 상황을 풀어내는 예술가의 창의적인 방법, 교육을 실행하는 자와 참여하는 자가 모두 행복한 경험을 하는 예술교육 현장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봄으로써 더 나은 예술교육 현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간	내 용	발제자 / 국가
14:00-14:05	오프닝 스피치 예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내 삶에 찾아온 변화	부이 아이 응웻 / 베트남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참여 학생
14:05-14:20	발제 1 예술교육가: 날개를 달아주는 자	알바로 레스트레포 / 콜롬비아 몸의학교 설립자·교장
14:20-14:35	발제 2 일상과 예술의 연결고리	천정명 / 한국 사다리연극놀이아카데미 교감
14:35-14:50	발제 3 음악적 교감: 소리, 상상력, 감성 그리고 예술성	베스 볼튼 / 미국 템플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
14:50-15:05	발제 4 행복한 만남: 시각예술에서 창의적인 배움의 장 만들기	안나 커틀러 / 영국 테이트미술관그룹 교육 총괄
15:05-15:20	휴식	
15:20-16:50	토론	제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겸임교수)
		노주희 (한국오디에이션교육연구소 대표)
		김병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교수)
		김세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교육기반본부장)
16:50~18:00	질의응답 및 폐회	

# 01-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 오프닝 스피치

### 부이 아이 응웬 베트남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참여 학생

2013년부터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에 참여한 베트남 북부 산간지역 라오까이성 사파 마을에 살고있다. 한국에서 온 예술가 선생님들과의 예술교육활동을 통해, 예술가의 시선으로 내가 사는 마을을 바라보고 주변의 소중한 이야기를 사진에 담는 법,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자유롭게 꺼내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2013년부터 창의적인 기법으로 기록한 개인 포트폴리오(사진)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 예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 내 삶에 찾아온 변화

4년 전 예술교육을 통해 처음 카메라를 손에 쥔 순간 이후 찾아온 크고 작은 변화를 소개했다. 예술은 각자의 마음 속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신나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예술가의 시선으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기록한 사진들과 함께 행복을 느꼈던 순간들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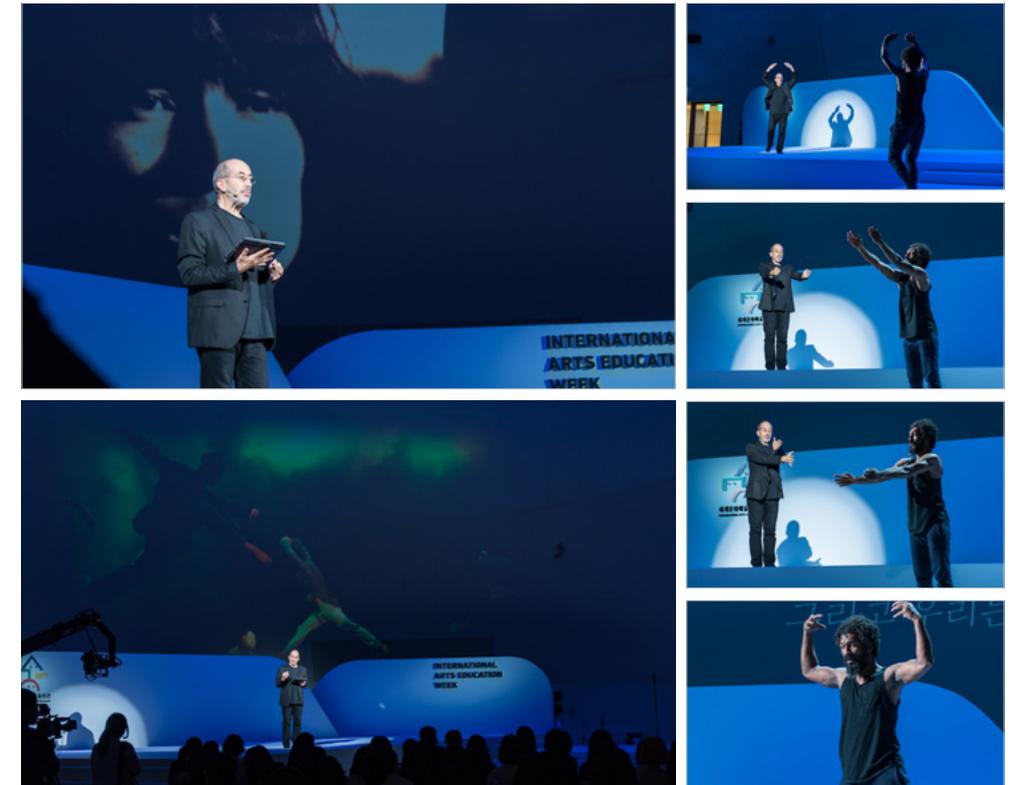
## 발제1

### 알바로 레스트레포 콜롬비아 몸의학교 설립자

몸의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콜롬비아 현대무용의 선구자로 무용 외 철학, 문학, 음악, 연극 분야 '통합신체 교육'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81년 콜롬비아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안무를 전공하고 귀국하여 1997년 몸의학교를 설립했다. 생각과 정신을 담고 있는 '몸'을 매개로 힘든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춤추고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 몸을 아끼고 타인을 존중하는 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 예술교육가: 날개를 달아주는 자

몸의학교 학생에서 무용수이자 교육자로 활동중인 리카르도와 함께 몸의 움직임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가진 힘과 가치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무대를 열었다. 이후 용기와 대범함을 가지고 창조와 상상력을 마주하는 법을 익히며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의 자신의 삶과 음악, 연극, 철학, 교육학, 사회복지 등 다양한 것이 한데모여 무용의 다중적 언어로 재탄생하는 '예술과 함께하는 교육'을 추구하는 '몸의학교'를 소개, 학교 교육에서의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제를 이어갔다. 예술교육자는 '날개를 달아주는 자(Wing Maker),' 즉 영감을 이끌어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예술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술가의 예술교육을 강조했다.



# 01-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 발제2

**천정명** 사다리연극놀이아카데미 교감

연극놀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삶을 연습'하고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사다리연극놀이 연구소의 연구원이자 연극놀이 전문지도자 양성 기관인 사다리연극놀이아카데미 교감. 어린이들과 연극/연극놀이를 만나며, 그 경험을 서울교대 대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등에서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다.

### 일상과 예술의 연결고리

의미를 연결하고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예술교육자가 교육 현장에 있을 때 인식과 삶의 변화가 나타난 연극놀이 사례에 이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술교육의 주요 요소들을 소개했다.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삶을 연습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태도 갖기,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기, 대상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개발, 예술교육의 가치와 의미 이해하여 참여자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이 예술교육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말했으며 예술가처럼 자신과 주변을 새로이 발견하고 예술의 은유와 상징을 활용해 자신을 표현하고 삶을 이해한다면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라고 전했다.



## 발제3

**베스 볼튼** 미국 템플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

템플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 리투아니아 국제 음악교육 회의 의장, 이탈리아 영유아 음악협회 명예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음악을 통해 소통, 움직임, 표현력 등을 증대시키는 영유아 음악 교육법을 연구한다. 몸의 움직임, 노래, 목소리, 얼굴 표현을 통해 아이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감정 발달에 기여하는 등 영유아 시기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음악적 교감: 소리, 상상력, 감성, 그리고 예술성

마음에 존재하는 음악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 '오디에이션', 감정을 일으키는 '소리' 외에도 움직임, 단어, 감성 등 많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중들이 음악과 관계맺음을 직접 경험케하는 음악적 교감 체험으로 무대를 열고 이어서 예술교육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단순히 전문적으로 기량이 뛰어나기만 한 것이 아닌 훌륭한 예술가겸 음악교육자가 필요한데, 꾸준한 학습과 노력으로 자신만의 예술성(artistry)을 발전시켜 음악교육자 역시 예술가가 되어야한다고 말하며 선생님들도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01-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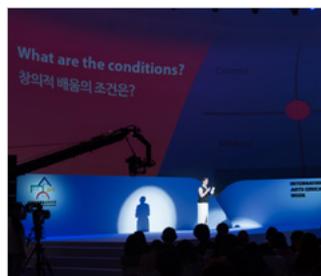
## 발제4

**안나 커틀러** 영국 테이트미술관그룹 교육 총괄

영국 내 위치한 4개 테이트의 교육 분야를 총괄한다. 30년 동안 국내외 문화, 교육 분야에서 연극 감독, 교육가, 프로듀서로 활약했다.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창의적 학습환경 조성방안, 시각예술이 사회·문화·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갖고 영국 교육시스템과 정책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위한 창의학습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강조해 오고 있다.

### 행복한 만남: 시각예술에서의 창의적인 배움의 장 만들기

미술관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동안의 고민과 연구의 과정을 소개하며 예술교육이 추구하는 행복한 만남이란 창의적인 학습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아이디어의 교환과 행동의 촉발이라 설명했다. 이 행복한 만남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가와 예술교육자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 토론

**제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겸임교수

**노주희** 한국오디에이션교육연구소 대표

**김병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교수

**김세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교육기반본부장

토론의 사회를 맡은 김세린 본부장(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교육기반본부)과 제한정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노주희 소장(한국 오디에이션 연구소), 김병주 교수(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가 1부의 발제자 네 명과 함께 예술과 예술교육의 관계, 창의성, 예술교육자의 자질과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관객의 마지막 질문에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힘’(제한정), ‘새로운 생각, 방식, 이해,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전체’(안나 커틀러), ‘새로운 아이디어를 처한 환경과 자의식에 연결할 수 있는 힘’(알바로 레스트레포), ‘익숙한 상징 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일’(천정명)이라고 답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 01-1

## 문화예술교육

### 국제심포지엄

#### 2부 토론 전문

##### 김세린

심포지엄 1부에서는 무용, 연극, 음악, 미술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예술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실천방법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국내 전문가 세 분을 더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드릴게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의 제한정 교수님, 콜롬비아 몸의학교 설립자이신 Mr. 알바로 레스트레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의 김병주 교수님, 사다리 연극놀이아카데미의 천정명 선생님, 한국오디에이션교육연구소의 노주희 소장님, 템플대학의 영유아 음악 전문가이신 Dr. 베스 볼튼, 영국 테이트에서 교육을 총괄하고 계신 Ms. 안나 커틀러, 그 옆에 제가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한정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한정

저는 ‘몸의학교’의 여러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나 감명적이어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술교육계의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오셨고,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예술교육들이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창의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완벽한 혹은 모든 사회에서 공유하는 정의가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술가나 과학자에게만 창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 까지는 이야기하는데, ‘몸의학교’가 이야기하는 가장 인간적인 것, 인간에 대한 존중, 자신에 대한 존중, 이런 메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몸의학교’에서 난민이나 특별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알바로 레스트레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창의적인 인간으로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예술과 영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신과 닮은 창의적 존재라는 자각과 인식을 하게 되면 스스로 생명을 창조해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인식하게 되면 타인의 신성한 본질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술교육은 바로 평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 역시 창조자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죠.

##### 제한정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요. 제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앞에 설 때 가장 두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인간으로서 나의 상처나 슬픔, 상실감,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이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몸의학교’에서는 특별한 상황에 있었던 아이들을 대할 때 리프레쉬하고, 화해하고,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의 가장 깊은 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동력이 궁금해요.

##### 알바로 레스트레포

우리는 몸으로 작업할 때 생명의 깊은 본성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는 많은 내전을 통해 엄청난 폭력을 겪었고, 현재 국가를 재건하는 중입니다. 몸에 대한 새로운 윤리도 형성해 가고 있어요. 몸은 우리 생명의 경건한 공간이자 장소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몸이 성전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몸은 매우 경건하고, 생명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학교’에서는 난민 아이들의 치유를 위한 ‘My Body, My Home’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몸이 안식처이자 실마리라는 겁니다. 즉 모든 문제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몸이라는 것입니다.

##### 제한정

이제 질문을 다른 분에게 옮겨서 Dr. 베스 볼튼에게 여쭙보고 싶은데요. 아까 볼튼 선생님이 발표해주실 때 즐겁게 노래도 따라하고 허그도 했었는데요. 막상 내가 과연 춤을 즐기고 있는가, 춤을 가르치면서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열정적인 즐거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지 방법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 베스 볼튼

제가 열정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계속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의 에너지와 활력, 또 무엇에 동기유발이 되고, 호기심을 갖는지,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들이 그야말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주희

아까 많은 청중들께서 함께 노래하고 서로 안으면서 감정이 교류하는 경험을 나눴는데, 그 안에는 베스볼튼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끌어내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음악적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하신 노래를 그 예로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감정을 어떻게 노래에 담아 소통하시고, 아이들 혹은 청중에게 전해서 그 감정을 공유하게 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 베스 볼튼

먼저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래) 감정은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해요. 노래 제목은 ‘파리와 개구리’입니다. 노래 절반은 개구리가 파리를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중반부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이에요. 이 노래의 음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하는 개구리의 모습이 아마도 재미있을 겁니다. 제 얼굴 한 번 봐주세요. 얼굴 잘 보이시죠. 사실 제 얼굴은 닭과 비슷한데요. 저는 제가 개구리라고 생각하면서 얼굴 표정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 주시겠어요? 이제 파리가 날아

# 01-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 2부 토론 전문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죠. 어린 아이들은 정말 좋아해요. 개구리가 파리를 잡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 손자 주드도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얼굴 표정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주드와 이 노래를 부를 때, 한 살 반 정도 되는 주드의 동생 델피도 한쪽에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아이들 아빠가 오더니 델피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더라구요. 어린 동생도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오빠와 할머니 얼굴 표정을 따라했던 거죠. 부모들은 아이들의 감정에 맞춰서 노래합니다. 감정에 집중하죠. 저는 아이들의 감정에 맞춰서 노래나 음악, 어조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의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하죠. 아이를 달래거나, 편안하게 잠들도록 하고, 애가 슬퍼할 때는 기분 좋게 하기도 하구요. 이렇게 감정을 활용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 노주희

아까 개구리 흉내를 내신 것은 보통 우리 교사들이 쉽게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망가져야 되니까. 우리는 선생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선생님의 표정 변화나, 노래하면서 동작을 하는 등 다양한 스타일을 구사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예술을 끌어내고, 흥미를 이끌어내서 스스로 하고 싶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관찰한 것이 맞다면, 선생님께서 그런 요소들을 사용하시는 이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흥미를 이끌어내는지, 선생님 생각을 더 여쭙보고 싶습니다.

### 베스 볼튼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 몸은 바로 우리의 집이라고 했었잖아요.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자주 작업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어린이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행동이나 생각 패턴들을 최대한 관찰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춤을 춥니다. 계속 몸을 움직여요. 우리는 가르칠 때 매우 깨끗하게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유롭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제 손자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할머니, 제가 왜 할머니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냐면 할머니 얼굴 때문이에요.” 고무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제 얼굴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아, 어른도 우리와 똑같구나’ 라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음악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주희

교사로서 가져야 할 태도의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딱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실 때 가졌던 의도, 목표 또는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어떤 단기적 혹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시는지 여쭙보겠습니다.

### 베스 볼튼

음악은 청각적이고 사회적인 예술입니다. 저는 공중으로 소리를 내면서 제 몸과 목소리, 창의성을 표출하죠. 제 음악적인 생각을 공중으로 표출하면서 공간감과 소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몸을 움직이면서 공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저의 계획이었어요. 저는 시각적인 도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프레젠테이션할 때 비주얼적인 것이 있으면 본래 제 의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음악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클럽이나 TV에서 많은 음악을 듣긴 하지만, 많은 방해 요소들 때문에 음악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의 메시지는 듣지 못합니다. 음악의 메시지라는 것은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말이나 가사가 없더라도 톤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사회적인 내용을 추가해보는데,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감정을 전달했고, 손을 맞잡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물리적으로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화음을 넣어서 복잡한 음악적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음악이더라도 그 속에서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오랜 시간이 흘러도 오늘 배운 이 노래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소리와 함께 즐거운 경험을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노주희

굉장히 단순하고 사랑스러운 사랑을 보고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처음 악보를 받았을 때 인상하고는 너무 다른 말씀이셨어요. 선생님께 어떤 사랑을 생각하고 이 노래를 만드셨느냐고 질문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대답에서 그 의문이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 대상 교육의 목표와, 우리가 습득하고, 익히고, 소화하고, 예술로서 정제된 훌륭한 음악으로서 전달해야 하는 교사나 전문가 교육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다른 지점이 있는지 혹은 공유하는 지점이 있는지도 더 여쭙보고 싶습니다.

### 베스 볼튼

아주 복잡한 질문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음악 수업을 듣지 않아요. 음악이 더 이상 의무교육이 아니거든요. 95%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더 어려운 주제나 과목도 공부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음악 수업을 듣지 않는 진짜 이유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아이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 손자가 17살인데 음악을 아주 좋아합니다. 중학교 때는 음악 수업을 듣지 않더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서는 우쿨렐레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면 좋아하는 록밴드 가수가 우쿨렐레 연주를 하니까 자기도 우쿨렐레를 배우더라구요. 우쿨렐레는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게 아니에요. 음악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스스로 배운거죠. 미국에서 학교 음악교육은 많은 아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음악이 아이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원인에는,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의 예술성을 충분히 계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기악 교육을 할 때 예술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예술성을 지속적으로 계발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또한 예술성을 계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01-1

##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 2부 토론 전문

#### 김세린

예술성에 대해 짚어주신 점이 와 닿습니다. 예술성을 높이려면 예술적 체험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할텐데요. 테이트의 ‘테이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야말로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안나 커틀러는 테이트 전체 그룹의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데, ‘테이트 익스체인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총괄하고, 운영하는지 듣고 싶어요. 또 안나는 창의 학습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연구 주제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지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나 커틀러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할게요. 저는 항상 거꾸로 응용하는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음악과 연주에서 비롯된 건데요. refrain 즉 후렴과 후렴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대한 생각입니다. 음악가들은 후렴구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새소리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반복을 하죠. 똑같은 구간을 반복하면서 후렴이 만들어지고, 스스로 계속 재생해나갑니다. 그러면서 후렴이 자신만의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감을 발휘해 다음 차원으로 후렴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확장됩니다. 다른 후렴구들이 모여서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열려있다면 새로운 것이 창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유추를 통해, 서로 방해하고 충돌하면서, 변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교육과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다 열어젖히고 충돌시켜서 생각없이 반복되는 후렴구를 새롭게 바꿔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태를 바꿔내는 것 ‘making the difference’.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예술교육가들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저희 테이트 익스체인지 연구자들의 목적의식이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4개의 테이트 기관들을 총괄하고 있는데, 큰 규모라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저를 돕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요. 스코틀랜드나 리버풀의 테이트 기관마다 담당자가 따로 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합니다. 저의 대부분의 시간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지금 그 팀이 60명 정도 되는데요. 서로 신뢰하고, 열려있는 것, 관대하게 대하는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구요. 그리고 무대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 영웅들과 팀원들의 관대함,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 김세린

안나 커틀러가 해주신 말씀 듣다보니 천정명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일상생활과 예술을 연결짓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예술가들이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 시야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술교육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천정명

일단 자기부터 열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놀이와 예술에 대해서 열려 있고, 작업을 하다보면 오히려 예술 교육을 하는데 예술작품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서도 부지런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스스로 재미있는 것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만 자꾸 다르게 보게 하는 훈련을 본인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병주

연극이라는 영역이 가진 종합적이지만 특수한 성격이 있잖아요. 다시는 재현될 수 없는 순간의 어떤 경험들에서 의미가 생성되고, 그 의미가 배움으로 연결되는 복합적인 작업인데요. 어린이들과 연극놀이나 어린이 연극 작업을 오래 해온 개척자이자 동지의 마음으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가 궁금해졌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시간의 개념입니다. 선생님이 현실의 시간과 상상의 시간이 공존하는 것이 연극이고 연극놀이다 라고 하셨고,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작업들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공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아동극작가인 수잔 지더와 짐 헨콕의 책에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장소는 경계가 정해진 공간이다. 장소는 특정한 위치, 물체, 사물, 사건과 관련된 우리 친밀감과 기억에 의해 그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소를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 기억하고, 결국 우리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이런 감각과 장소와의 연결고리를 갖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린이 연극, 또는 어린이 연극놀이 하면 예쁘고,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소품과 무대와 의상들을 떠올리실텐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을 보이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거든요. 현장의 작업가로서 그 둘의 균형점을 어떻게 맞춰 가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천정명

김병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연극의 일회성이 삶하고 닮아 있잖아요. 우리 삶은 ‘잠깐 멈춰!’ 한다고 다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연극을 수업으로 하면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사건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무대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잠깐’ 하고 나와서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왜 꼭 저렇게 해야되지? 라고 다시 볼 수 있는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다 의미있게 체험을 하려면 그 상징의 요소들을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학교 공간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공간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까를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책상도 어떻게 저렇게 뺐다가, 어떻게든 다른 새로움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완성품을 주는게 아니라 상상을 불러 일으키는 기본적인 상징을, 가장 적절한 상징을 찾는 게 저희들의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공간을 표현할 때 거기에 모든걸 다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방에 있던 한 아이가 지금은 여기 없다, 아이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그 아이의 방에는 뭐가 있을지 아이들과 같이 상상해서 그 아이의 방에 책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책상을 상징하는 어떤 것을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그런 약속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약속들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드라마에 강아지가 나온다고 해서 강아지 인

# 01-1

## 문화예술교육

### 국제심포지엄

#### 2부 토론 전문

형을 갖다 놓는 것 보다는 강아지 밥그릇이나 목줄, 개조심이라고 붙여놓은 어떤 상징물 이런 것이 오히려 상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이런 상징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병주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패널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영역별로 나눠져는 있지만 예술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술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떤 덕목이나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언급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에릭 부스같은 분은 80%의 법칙이라고 해서 ‘당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의 80%는 사실은 당신 자신이다. 기술을 가르치고 있고 예술의 기능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당신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연극 분야의 필립 테일러 같은 분은 아예 ‘당신이 가르치는게 당신 자신’ ‘you are what you teach’라는 말을 한 적도 있거든요. 저도 학교에서 교사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다들 저걸 언제다 마스터해서 좋은 예술교육가가 될까라는 고민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연극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기능, 시각적 이거나 결과물로 보이는 기능보다는 순간의 경험들을 포착하고, 의미를 찾고, 좋은 질문을 꼬집어내거나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우선시 되는게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 천정명

보통 연극은 집에서 하라고 권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재미있게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찾고, 연습하고 그래요. 그런데 연극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좋아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어떤 방편으로, 뭔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금방 벽에 부딪히시더라고요. 연극에서 자기가 느끼는 신념이나 즐거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연극교육에서도 그대로 동등하게 작용이 되어야 어려움에 부딪혀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연극 예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자기가 실천한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연구소에 많은 연구원이 있는데요. 내실있게 성장하는 후배들을 보면 자기가 수업한 것을 다 녹음해요. 그리고 수업한 시간보다 더 길게 그 녹음을 풀고 들어요. 어떤 애가 무슨 말을 했고, 내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줬는지, 수업시간에는 적절하게 대응을 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들으면 애가 다른 말을 했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자기가 실천하는 현장에서부터 잘하고 그것을 다시 잘 되짚어봐서 성장하는 예술교육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알바로 레스트레포

안나 커틀리씨가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저도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generosity 즉 관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몸의 학교를 창립했을 때 제가 마흔 살이었습니다. 공연자로서도 늦은 나이인 24살에 출발했죠. 미국에서 6년 동안 무용수로 활동을 했

고, 그다음에 짧게 몇 년 동안 공연자로서, 안무가로서 활동하다가 마흔 살이 되어서야 몸의 학교를 창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인생 작품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이 무용수들, 이 학교를 내 인생의 예술작품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다졌죠. 그 관대함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성공한 예술가들을 동원하는 것은 예술교육에 있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대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런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술교육가들은 아이들을 선동해야 합니다. 아까 저와 무용을 했던 리카르도는 18년 동안 저와 함께 했고, 또 아이때부터 16년 정도 저와 함께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면서 예술교육에 함께할 수 있는 관대함을 이끌어 내고, 열정을 바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퀄리티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베스볼튼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의 대상의 생명력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길들이고, 아이의 천진난만함을 죽이는 교육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다시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생명력, 활력을 되살리고 또 유년기 자체를 되살리는 거죠. 예술교육이 아말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되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한정

학생들에게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춤을 배우러 오는게 아니라 너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너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술교육자를 바라는데 아니라 ‘윙메이커(날개를 달아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깊기도 하고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기도 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여쭙어보고 싶었던 것은, 레스트레포 선생님의 그 아이디어, 신념, 20년 동안의 헌신이 세계의 많은 무용교육자들에게 혹은 예술교육자들에게 영감을 많이 주었는데, 선생님의 윙 메이커는 무엇이었는데 그리고 날개가 한번 달린 뒤에 20년 동안 한 방향으로 날아오려면 정말 엄청난 동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동력의 원천은 어떤 것이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알바로 레스트레포

예. 제가 조규현 선생님을 말씀드렸죠. 저에게 날개를 주신분입니다. 물론 그분만이 아닙니다. 많은 교사들과 많은 교육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든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셨죠. 저는 어릴 때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저는 학교가 정말 싫었습니다. 최악의 학생이었어요. 오랫동안 정말 최악의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구석진데 있었고, 항상 쫓겨났었어요. 그리고 교육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길, 제 삶의 비전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행복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보통은 분리되어 있죠. 서로 적입니다. 교육과 행복을 어떻게 결합시키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노벨상 수상자인 마르케스는 이렇게 말했죠. ‘오랜 행복한 삶의 비밀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뿐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만이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90% 이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되는 일을 합니다. 사랑해서, 좋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해야되니 해요. 그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01-1

## 문화예술교육

### 국제심포지엄

#### 2부 토론 전문

##### 제한정

많은 생각을 하게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해야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하고싶은 일을 하라는 말씀인데 뜨끔하신 분도 계시죠? 저처럼?

##### 김병주

사실은 아까 발제하셨을 때 매우 궁금했고, 신선하게 느껴졌던 표현이 있었어요. 그동안의 예술교육 담론은 ‘예술에 대한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대체로 양분화된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에릭 부스의 ‘예술 안에서의 교육’ 개념도 있긴 합니다. ‘education through the arts’라고 우리가 사용할 때 원래 의미와 취지와는 별개로 예술이 자꾸 도구화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성교육을 하기 위한 예술, 도덕교육을 하기 위한 예술, 학교폭력을 하지 않기 위한 예술.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예술이 본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보다는 교육이라는 환경안에서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예술교육의 담론도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중에 ‘for the art’ 다음에 ‘with’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술과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인데 과연 우리가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즐거움과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보고 지향해야 될 방향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표현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완전히 패러다임이 새롭게 정리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혹시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알바로 레스트레포

예.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술이 도구화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술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이 되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비폭력을 위해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예술을 교육과정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술은 예술로 남아야지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 수단으로만 전락하면 본연의 가치를 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술을 활용해서, 예술교육을 활용해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퀄리티라고 봅니다. 퀄리티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런 가치를 위해서 예술이 타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과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똑같이 열정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나 커틀러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예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달라질텐데요. ‘예술과 함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체험의 퀄리티, 결과의 퀄리티도 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과의 퀄리티를 따져야되고, 어떤 경우에는 결과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더라도 과정의 퀄리티가 높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예술작품을 만들면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인지 예술작품의 질이 중요한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예술교육가들이 어때야 하는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술을 프로세스,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은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역량, 테크닉까지 다 쏟아 붓습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알바로 레스트레포

예, 맞습니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헛된 희망을 품지 않도록 목적의식을 아주 뚜렷하게 가져야 합니다. 예술과 함께 교육을 하는 것인지, 예술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예술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지 확실하게 하고, 목적을 뚜렷하게 해야 합니다. ‘예술과 함께 교육’이라면 예술가와 함께 하면서, 예술가와 대중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노주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술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거나 혹은 프로페셔널 댄서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ducation with dance’, ‘education for dance’ 이 둘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도구가 되느냐, 수단이 되느냐 아니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서 어떤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훌륭한 길을 만드느냐의 차이는 우리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함께하는 그 예술의 퀄리티, 질에 따라 달라지게 아닐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술의 질이 중요하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두 분 말씀하실 때 하게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예술가가 아닌 교육가가 예술을 교육하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우리의 교육가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질과 역량, 능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볼튼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시간들이 볼튼 선생님께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셨다고 생각들었거든요. 교육가로서, 동시에 예술가로서.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티스트리’라고 말씀하시는 지점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하면 우리의 능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베스 볼튼

제가 한 발자국씩 해야한다고 했었죠.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싶다, 계속 나아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러고 싶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과도 그런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마흔한 살 때, 가르치는데 있어서 나름의 규칙으로 삼은게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런 음정으로만 노래를 하고, 다음 주에는 저렇게 하겠다. 제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만들고, 학습과정과 스케줄을 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훈련을 하는 거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예술을 계속해서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를 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음악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제 경험을 보면, 제가 더 나은 뮤지션이 된 이유는 다양한 예술을 탐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가족공예, 원예 등 다양한 예술 형태 배우기를 시도했어요. 스스로 배

# 01-1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 2부 토론 전문

우는 것이 예술성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기 성찰도 큰 도움이 되지요. 자신 앞에 거울을 비춰보면서 다양한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계속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 안나 커틀러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요마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비디오가 있는데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연주 실력이 정말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연주하던 악기를 내려놓고 그 음을 소리를 내서 노래를 하라고 합니다. 연주와 노래가 끝난 후에 어떤 것이 좋았냐고 했더니 다들 두 번째, 음을 소리로 내는 것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배우는 과정은 다르다는 거죠. 퀄리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퀄리티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는 거죠. 만족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 알바로 레스트레포

저도 질문있는데요. 예술가가 아닌데 예술교육가가 될 수 있을까요? 과학자가 아닌데 과학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술가가 아닌 사람에게 왜 예술교육을 맡길까요? 다른 학문에서는, 예를 들면 과학교육자는 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데 예술교육에서는 왜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호소하는 것은 지금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예술교육에도 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나 커틀러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회계사가 경제학을 가르치거나, 물리학자가 물리학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설가가 문학을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교수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인데 아이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과 절대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가진 기질로 아이들과 기싸움을 하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물론 아이들이 승자이겠지만. 물론 아이들과 잘 작업해서 찬사를 받을만한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예상 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베스 볼튼

첨언을 하자면, 저는 예술가가 아닌 음악교육가입니다. 오랫동안 국공립 학교의 평범한 음악교사로 지냈습니다.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가 이 교육 제도의 규범을 깨보자, 벗어나보자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대함을 저에게 발휘하려고 했습니다. 내 에고를 버리고 내 예술성을 찾아보자, 내 예술혼을 스스로 발현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예술가처럼 행동하겠다, 예술가처럼 생각하겠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더니 예술교육가로서의 삶도 변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예술교육가로 훈련을 받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정답과 오답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이 음은 이렇게 내야되는 것 이라고 배우고 학생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자신이 감혀 있던 것처럼 아이들을 가둬놓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내 스스로 해방되고 학생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고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 김세린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콜로키움에서 나왔던 얘기가 생각이 났구요. 아까 안나가 대답해줬던 것 중에 그많은 테이트의 기관들을 운영하는지 그 부분에서 답을 듣고 다시 답을 안했었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큰 팀과 믿음만한 팀원들이 있어서 교육프로그램들과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게 부럽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희 진흥원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아직 규모는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많은 수의 연구자들이 있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동시에 안나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데 객석에서 질문을 몇 개 주셨는데 시간관계상 안타깝지만 다 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구요. 이 중에서 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에서 주신 질문중의 하나가 예술교육에서 창의성이란 단어가 항상 등장하는데, 창의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각 선생님들께 여쭙보고 싶다고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이거는 순서 구애받지 않고 먼저 말씀하고 싶으신 분부터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한정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우리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아까 제가 창의성 얘기 잠깐 꺼냈는데, 어제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한 선생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정의를 그 안에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도출해보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의 용량이 외우지를 못해서 인상깊게만 들었네요. 제가 생각할때는. 상상, 영감 미학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 왔지만 21세기에는 압도적으로 창의성인 것 같아요. 그 중의 하나 생각을 하자면 상상력을 구체화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닐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로 먼저 첫 가지를 조심스럽게 내밀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너무 궁금해요.

### 안나 커틀러

간단한건 아니죠.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창의성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정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창의성이란 어떤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하나의 영감을 통해 무언가를 창조하는 과정이나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자신만의 새로운 발상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엔 종종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창의성엔 특정 조건이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방법 또는 새로운 이해방식을 만들어 내야한다는 거죠. 그리고 활동적 개념이 담긴 창의성이 있는데요. 무언가를 하거나 만드는 행동, 아이들이 교실에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창의성이 될 수가 있죠. 이런 행위에도 물론 창의적 사고는 동반됩니다.

# 01-2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

**주제** 예술가치의 공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방법론의 탐색  
**일시** 2017. 5. 25(목) 10:00-19:00  
**장소** 블루스퀘어 일대  
**참석**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문화예술교육자, 예술단체, 예술가, 대학(원)생 및 일반인 등 총 460명

###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10개의 관련 학회가 모여 6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각 학회 관련 인사들과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를 비롯한 전문가, 대학(원)생 및 일반인 등 약 46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 \*참여 학회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한국문화교육학회,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한국사진교육학회, 한국연극교육학회, 한국연기예술학회, 한국영화교육학회, 한국예술교육학회,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조형교육학회

시간	내용	장소
10:00-10:30	등록 및 접수	공간 네모 앞
10:30-10:45	개회	
10:45-11:15	[기조연설] '문화로서의 예술'에 대한 교육의 시선 주성혜 원장(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11:15-11:35	[특별강연] 예술, 우리 삶의 설탕 한 스푼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정진, 『피아노 치는 변호사』 저자)	카오스홀
11:35-11:40	오후 세션 안내	
11:40-13:00	점심시간	
[예술가치의 공감, 문화예술교육 방법론 탐색을 위한 6개의 주제]		
주제 1 13:10~17:10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극, 연기, 영화 교육 방법론의 미래 과제 (한국연극교육학회, 한국연기예술학회, 한국영화교육학회)	카오스홀
주제 2 13:10~17:30	예술가 참여, 문화예술교육의 힘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한국문화교육학회, 한국사진교육학회)	아트파크
13:00-17:30	주제 3 13:10~15:10 테크놀로지와 예술교육 (한국예술교육학회)	공간 네모
주제 4 15:30~17:30	음악교육의 창의적 확장을 위한 역량과 방법 모색 (한국음악교육학회)	1층
주제 5 13:10~15:10	문화예술교육의 국가적, 시대적 가치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공간 네모
주제 6 15:30~17:30	미래예술교육을 위한 창의적 방법 탐구 (한국조형교육학회)	2층
17:30-18:40	[종합토론] 6개의 주제 방 결과 공유: 6명의 좌장	카오스홀
18:40-19:00	[폐회] 논문대회 시상식 및 폐회	

### 기조연설 '문화로서의 예술'에 대한 교육의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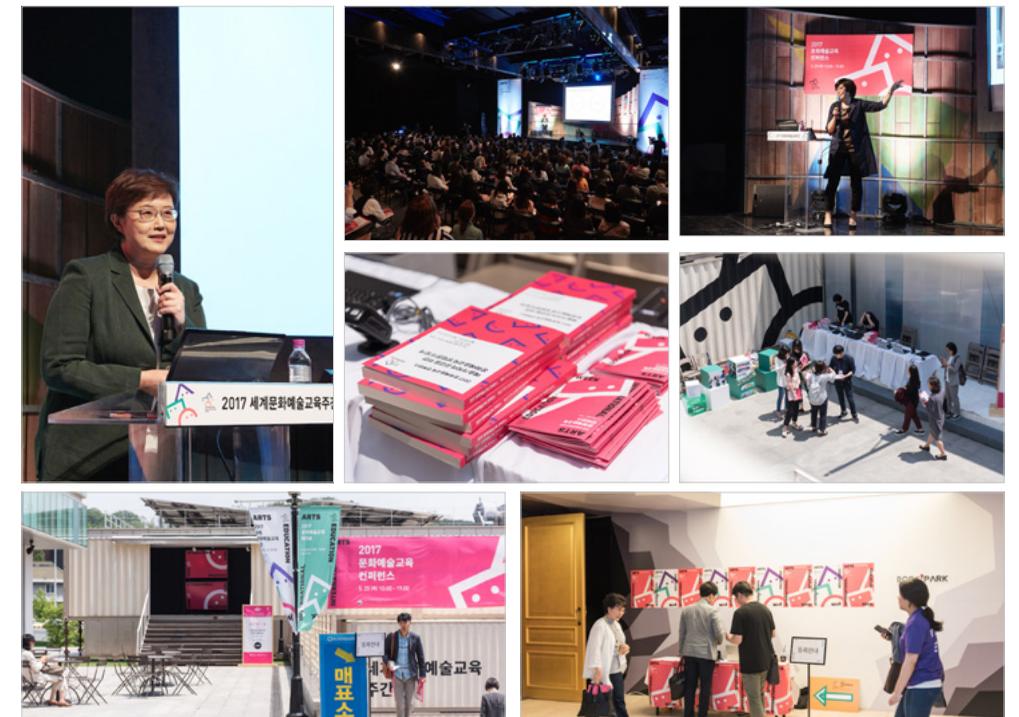
**주성혜 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컨퍼런스의 포문을 연 기조연설은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철학과 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사회가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공감할 때 문화예술의 가치가 빛날 수 있음을 상기하면서 문화예술교육에 거는 기대와 현실을 성찰하고 이를 위한 바람직한 접근법에 대해 공유했다.

### 특별강연 예술, 우리 삶의 설탕 한 스푼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진, 「피아노 치는 변호사」저자

특별강연은 '예술, 우리 삶에 설탕 한 스푼'이란 주제로 우리의 삶에 자극과 격려를 해주는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내용으로 공감을 자아냈다. 더불어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달콤한 위안으로 다가오는 예술의 진정한 힘, 그리고 낯선 과제가 아닌 익숙한 경험으로서의 소중한 예술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 01-2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

## 주제1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극, 연기, 영화 교육 방법론의 미래 과제

###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연기교육 및 연극교육, 영화영상교육 등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연구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여 학회	한국연극교육학회, 한국연기예술학회, 한국영화교육학회		
시간/장소	13:10-17:30 / 카오스홀		
세션 1 13:10 - 15:10	세션 개최 및 참여 학회 안내	사회	조혜정 (중앙대)
	좌장(한국연극교육학회) 인사	좌장	김대현 (호서대)
	연기교육, 스타만들기가 아닌 인성과 창의성의 나눔 교육 : 극단 서울공장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	임형택 (극단 서울공장)
		토론	김인준 (국민대) 박근수 (인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성과 감성을 함께 촉발하는 연극체험	발제	최지영 (한예중, 서울교대)
		토론	표원섭 (청주대) 강양은 (청운대)
	좌장(한국연기예술학회) 인사	좌장	안재범 (계명대)
		동시대 연기자 교육에 있어 '몸 훈련'의 의미 : 배우의 준비된 상태	발제
	토론		이영란 (경희대) 신대식 (상명대)
	융합형 인재구현과 역할연기의 상관연구 : 인재혁명으로의 예술교육(역할연기)의 가치	발제	박진태 (여주대)
		토론	오진호 (상명대) 송갑석 (강원대)
	<b>Break Time 15:10-15:30</b>		
세션 2 15:30 - 17:30	좌장(한국영화교육학회) 인사	좌장	김석범 (수원대)
	영화영상교육의 효과적 방법에 관한 연구	발제	양경미 (한국영상콘텐츠 산업연구소)
		토론	진승현 (호서대) 최광영 (여주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술적 가치를 위한 영상교육의 미래	발제	고동우 (호서대)
		토론	최종한 (세명대) 신상엽 (동국대)
	종합 토론 : 사회자 / 3개 학회장 / 3명의 좌장		조혜정 (중앙대), 김인준 (국민대), 오진호 (상명대), 진승현 (호서대), 김대현 (호서대), 안재범 (계명대), 김석범 (수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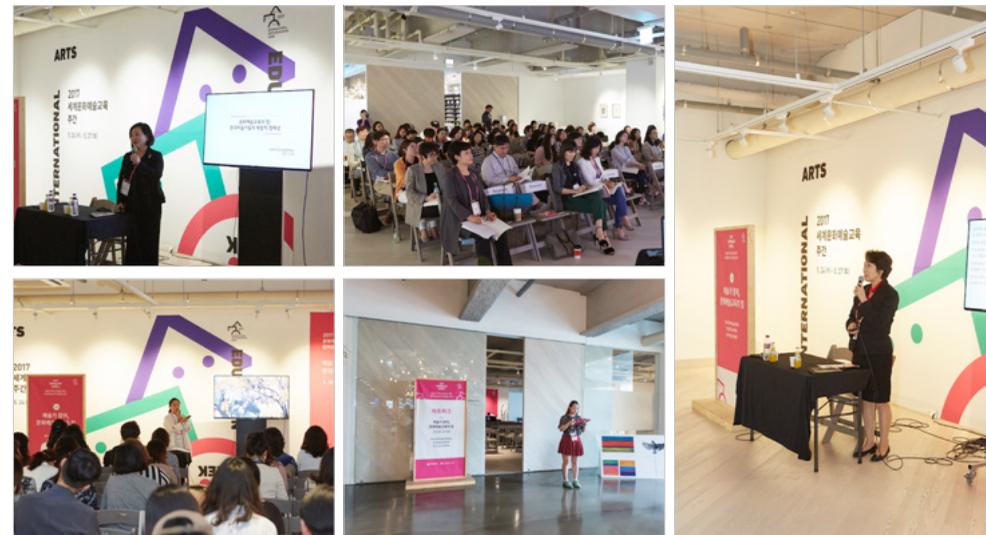
# 01-2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

## 주제2 예술가 참여, 문화예술교육의 힘

### 주요내용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 사례를 통해 미술관 교육의 특성, 공예 문화예술교육의 접근 방법, 예술의 치유적 기능을 통한 관여하는 예술 등에 대해 나누며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의 힘과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다.

참여 학회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한국문화교육학회, 한국사진교육학회		
시간/장소	13:10-17:30 / 아트파크		
세션 1 13:10 - 15:10	세션 개회 및 참여 학회 안내	사회	김향미 (숙명여대)
	문화예술교육의 힘 : 한국 미술가들의 복합적인 정체성	발제	박정애 (공주교대)
		토론	이민정 (공주교대)
함께, 참여하는 미술관	발제	최혜경 (경기도미술관)	
	토론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Break Time 15:10-15:30			
세션 2 15:30 - 17:30	공예 문화예술교육의 확장과 실제	발제	이부연 (한양대)
		토론	고홍규 (홍익대)
	예술의 치유적 기능, 참여를 넘어 관여하는 예술로	발제	한경은 (아티스트, 아트 테라피스트)
토론	신승녀 (수원푸른교실&미술치료연구소)		



## 주제3 테크놀로지와 예술교육

### 주요내용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한 예술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발제와 함께, 예술교육과 함께하는 코딩 수업 등 미래 환경에 적합한 예술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며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다.

참여 학회	한국예술교육학회		
시간/장소	13:10-15:10 / 공간 네모 1층		
세션 1 13:10 - 15:10	사회자 인사 및 학회장 소개	사회	김형숙 (인하대)
	(초청강연)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학교 예술교육의 발전 방향	발제	홍후조 (고려대)
디지털 아트 미학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술교육	발제	이지연 (조선대)	
	종합토론	토론	김미숙 (상명대) 고은실 (서울대)
세션 폐회		사회	김형숙 (인하대)



# 01-2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

## 주제4 음악교육의 창의적 확장을 위한 역량과 방법 모색

### 주요내용

미래 음악교육 방향에 따른 역량 중심의 창의성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 중심 음악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회	한국음악교육학회		
시간/장소	15:30-17:30 / 공간 네모 1층		
세션 2	사회자 인사 및 학회소개	사회	주대창 (광주교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역량 중심의 창의성 교육	발제	장근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차 산업혁명과 세계음악교육	발제	이영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30 - 17:30 공감각(Synesthesia) 세대를 위한 총체예술형태 : 뮤지컬 파크와 음악 전람회	발제	박지원 (나사렛대)
	종합토론	토론	조성기 (공주대) 정완규 (중앙대) 김지현 (조선대)

## 주제5 문화예술교육의 국가적, 시대적 가치

### 주요내용

국가 간의 서로 다른 문화의 조화점을 찾고 적절하게 학습, 적용해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넓히고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통해 시대적인 요구에도 발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들을 나누었다.

참여 학회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시간/장소	13:10-15:10 /공간 네모 2층		
세션 1	사회자 인사	사회	오세곤 (순천향대)
	한국적 5음계를 통한 아카펠라 교육방법 연구 : 코다이 아카펠라 교수법을 중심으로	발제	조흥기 (코다이문화예술교육연구소)
	토론	토론	최영익 (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
	13:10 - 15:10 제4차 산업혁명과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의 창의력을 중심으로	발제	성민정 (경희대)
	토론	토론	임성민 (성균관대)
15:10	영국의 문헌을 통해 본 창의교육과 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 All Our Futures: 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 (1999)을 중심으로	발제	오세준 (성균관대)
토론	토론	이송하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마무리	사회	오세곤 (순천향대)	



# 01-2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

## 주제6 미래예술교육을 위한 창의적 방법 탐구

### 주요내용

하나의 미술 작품을 통해 집중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방법과 자기주도적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예술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참여 학회	한국조형교육학회		
시간/장소	15:30-17:30 / 공간 네모 2층		
세션 2 15:30 - 17:30	사회자 인사 및 학회장 소개	사회	이지연 (한국교원대)
	예술작품 하나로 교과를 가로지르기 : <프로젝트 하나>의 방법론적 가능성 탐구	발제	최성희 (홍익대)
	예술기반 연구방법에서 바라보는 예술의 가치	발제	이미정 (한국교원대)
	학생이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과정 : 자기주도적으로 찾아가는 삶과 삶의 길	발제	안지연 (서울대)
	종합토론	토론	고황경 (부천북여자중) 류지영 (춘천교대) 강주희 (목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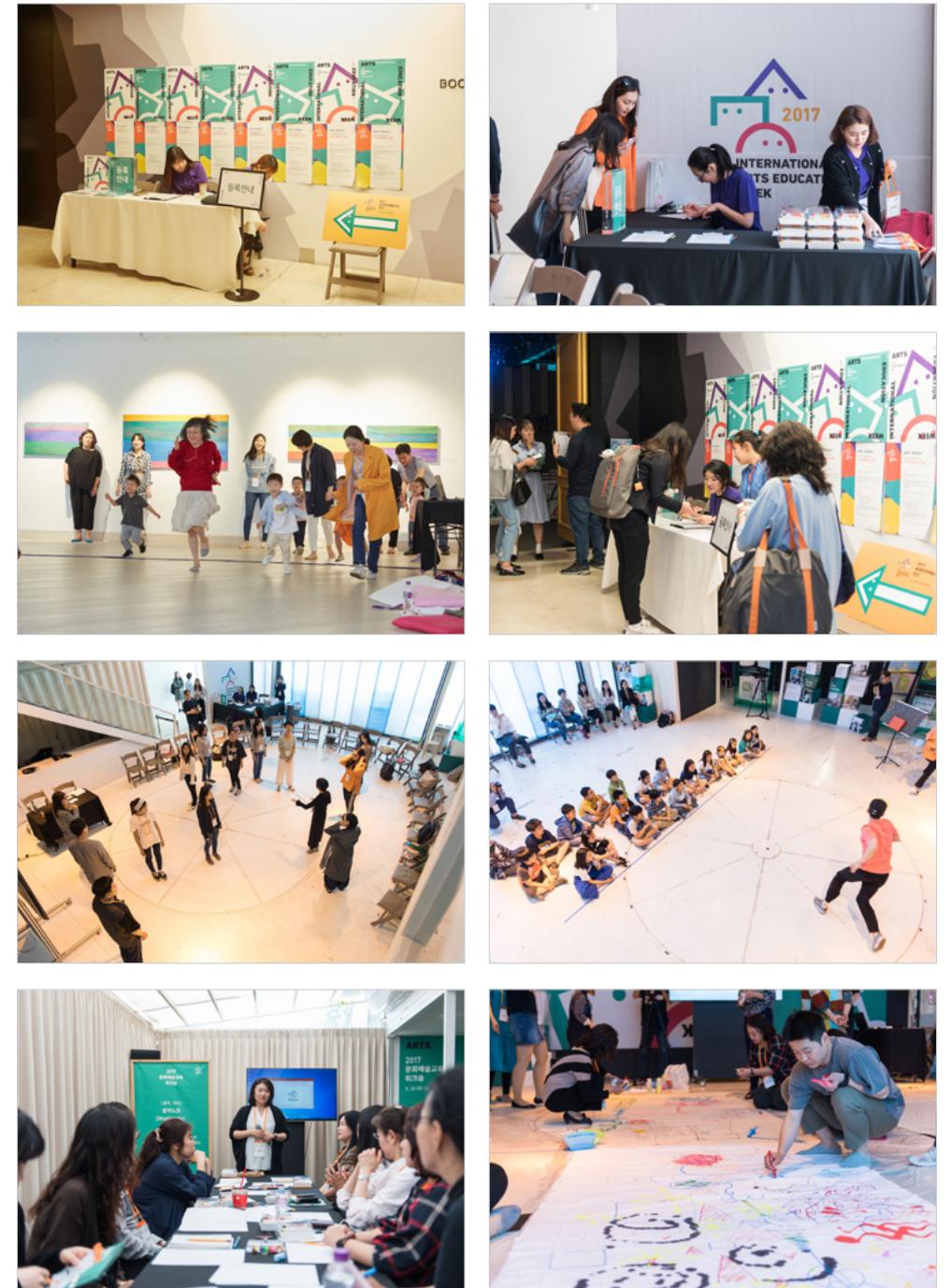


# 01-3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일시** 2017. 5. 26(금) 13:00-18:00  
**장소** 블루스퀘어 일대  
**참석** 예술가, 예술강사, 예술교육자 등 매개자 및 일반시민 총 647명

**주요내용**

아트파크	공간 네모 1층	공간 네모 2층	공간 네모 3층	카오스홀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아르떼펠로우 심사
16:00-18:00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베스 볼튼 /음악	13:00-14:30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만나기 신선영, 김정현 /연극	14:00-15:45 음악노트 (Musicnote) 이의정/음악	14:00-15:00 나의 조각, 우리의 작품: ME WE 구수현, 김채린 /미술	14:00-18:00 아르떼펠로우 공모심사
	Break Time			
	14:45-16:15 곳간 채우기 프로젝트 이윤미, 유은정, 안용세 /연극	Break Time	Break Time	
	Break Time	16:00-18:00 나무작업, 나무에 흐르는 시간 남머루/목공	15:30-16:30 빛나는 초상화 전현구, 김태훈 (시네버스) /사진	
	16:30-18:00 너에게 심포를 줄게 윤동희/문학			



# 01-3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베스 볼튼 (Beth Bolton)** 영국템플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 음악교육과

- **예술작업과 교육활동**  
영유아를 위한 음악 개발 • 평가, 음악학습이론, 음악교과 과정 개발, 영유아 음악 작곡
- **프로그램 주요 단어**  
경험, 과정, 움직임, 표현, 소통, 사유, 노래, 영유아, 음악학습, 음악훈련, 청각경험
- **프로그램 컨셉**  
단순한 체험은 예술적 경험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예술적 감수성, 감각, 표현력 또한 연습과 학습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청각적, 음악적 경험은 사유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 **결과**  
**참여인원: 영유아 및 보호자 7쌍, 매개자 38명**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음악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아이들도 시간이 갈수록 적극적인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풍성한 음악 환경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음악 안에서 서로를 안아주면서 선생님과 부모, 아이들 간의 교감이 이뤄졌다. 아이들과 따뜻하게 주고받는 감정적인 교류와 음악적인 참여 속에서 오디에이션 능력, 즉 '음악을 이해하는 힘'이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 01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만나기

신선영, 김정현

- **예술작업과 교육활동**  
연극-코러스 앙상블
- **프로그램 주요 단어**  
몸, 소리, 인물, 코러스, 앙상블, 신체성, 음악성
- **프로그램 컨셉**  
무대, 소품, 조명, 의상 그 무엇이 없더라도 오직 '신체'를 통해 인물을 표현하고 다함께 연극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
- **결과**  
**참여인원: 25명**  
참가자들이 직접 <맥베스>의 주인공이 되어 움직임(동작), 소리 등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코러스 앙상블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극적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으로 맥베스를 만나고 작품 속 인물을 이해하며 음악을 통해 총체적인 감정과 감성을 표현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 01-3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 02 공간 채우기 프로젝트

KCP수료생:이운미, 유은정, 안용세

- 예술작업과 교육활동  
이야기 극화, 드라마, 연극 워크숍
- 프로그램 주요 단어  
이야기, 극화, 과정, 드라마, 연극, 참여, 돈, 삶
- 프로그램 컨셉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 김진희 작, 문학동네(2015년) 이야기 구조의 흐름을 따라, 참여자들은 조각상 만들기, 역할 내 교사와 극적 상황 체험하기, 즉흥연기, 장면 만들기 등 다양한 볼거리 및 연극적 기법과 연극놀이를 통해 활동 안에서 스스로 묻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
- 결과  
**참여인원: 아동 20명**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김진희 작. 문학동네. 2015)〉 이야기 구조의 흐름을 따라 참여자들이 조각상 만들기, 역할 내 교사와 극적 상황 체험하기, 즉흥연기, 장면 만들기 등 다양한 볼거리 및 연극적 기법과 연극놀이를 통해 활동 안에서 스스로 묻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아이들이 이야기 속에서 '선행'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진솔하게 자신의 생각을 모든 사람 앞에서 표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03 너에게 심표를 줄게

윤동희

- 예술작업과 교육활동  
문학-글쓰기
- 프로그램 주요 단어  
몸, 색채, 길, 공간, 이야기, 말하기, 글, 행위, 담기, 쓰다듬기
- 프로그램 컨셉  
문학적 글쓰기는 언어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고백이다. 종이 위 글로 펼쳐 보이기 전에 서로의 관계로 고백을 풍성하게 만든다.
- 결과  
**참여인원: 30명**  
물감 및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나의 생각, 일상, 지나온 시간을 선으로 표현하고 느낌, 생각,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람들 앞에서 말과 글, 선과 색으로 개인의 생각을 담아 표현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쓰다듬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 01-3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 04 음악노트(Musicnote)

### 이의정

■ 예술작업과 교육활동

음악-작곡

■ 프로그램 주요 단어

작곡, 악보, 그래픽 로테이션, 노래, 이야기, 스토리텔링, 소리, 리듬, 멜로디

■ 프로그램 컨셉

악보가 필요 없는 작곡, 누구나 작곡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로 음악을 만듭니다. 자신의 음악을 기록(그래픽 로테이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면 선생님이 나만의 음악을 악보로 그려준다.

■ 결과

참여인원: 20명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고, 그래픽 로테이션을 통해 기록한 것을 신문지, 에어 캡, 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소소한 이야기와 그림, 기록, 소리를 이용한 작곡 과정을 통해 음악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하나의 틀을 깨고 표현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나본 시간으로 마련됐다.



## 05 나무작업, 나무에 흐르는 시간

### 남머루(남현우)

■ 예술작업과 교육활동

나무작업

■ 프로그램 주요 단어

나무, 여백, 덜다, 담다

■ 프로그램 컨셉

나무작업은 생각의 시간을 선물한다.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경험(노작)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을 가져다준다.

■ 결과

참여인원: 20명

나무 반지 만들기에 집중하면서 만드는 행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복잡하고 다소 시끄러웠던 일상을 살던 참가자들은 나무 작업을 통해 인생의 여백을 찾게 되었고 삶 속에서 덜어내야 하는 생각들과 담아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 01-3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 06 나의조각, 우리의 작품: ME WE\_구수현, 김채린

구수현, 김채린

- 예술작업과 교육활동  
미술-캐스팅
- 프로그램 주요 단어  
나의 몸, 캐스팅, 익숙한 것들과의 새로운 조합, 우리의 관계, 피부 감각
- 프로그램 컨셉  
캐스팅 기법으로 나를 상징하는 몸의 일부분을 조각품으로 만들고 '사적인 경험'의 대화를 속삭인다. 대화 속에서 자신의 감각을 응시하고 나의 몸에 대한 사랑을 품는다.
- 결과  
참여인원: 20명  
손, 손가락 등 내 몸의 한 부분을 캐스팅(Casting)해보고 조각에 스며있는 삶의 이야기, 흔적을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작품을 만들며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나의 감각,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와 나 아닌 것들 간의 관계와 조합, 풍성한 대화를 시도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07 빛나는 초상화

시네버스: 전현구, 김태훈

- 예술작업과 교육활동  
영화-프레이밍
- 프로그램 주요 단어  
프레이밍, 생각, 생각 틀, 빛,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야광, 관찰, 타인, 나, 바라보기
- 프로그램 컨셉  
영화에 담긴 주제는 영상, 사건들의 프레임 속에서 전달된다. 프레임은 세상을 보는 눈, 나의 생각을 담는 틀이다.
- 결과  
참여인원: 아동 19명  
야광 물감을 활용해 오브제를 하나의 선으로 그려봄으로써 나의 눈과 빛, 시선, 생각을 느껴보는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그릴 대상물에 시선을 고정하고 종이를 보지 않은 채, 연속적인 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대상물을 관찰하는 정확한 눈과 집중력, 사고력, 표현력 등을 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 01-3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 일반시민 대상 워크숍

**주제** 문화예술교육 신념과 상상, 기쁨을 말하다.  
**일시** 2017. 5. 27. (토) 10시~18시  
**장소** 언더스탠드에비뉴 하트스탠드  
**참석**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 일반시민 총 7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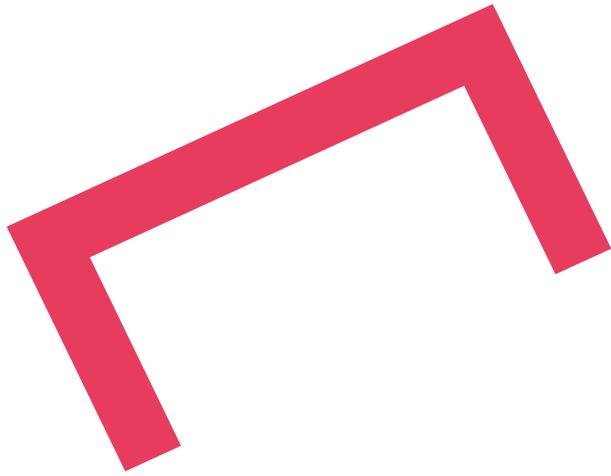
**주요 내용**

구분	워크숍명	전문가	참석	프로그램 내용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	베스 볼튼 (Beth Bolton)	12명 (영유아(12~15개월) 및 가족)	영유아를 위한 음악학습 및 경험의 기회를 가족과 함께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무무(舞無) 댄스 !!	안은미	42명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춤을 출 수 있다. 무무(舞無) 댄스 !!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춤은 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안무가 안은미! 자유가 있고, 일탈이 있는 춤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상상을 놀이하다	왕춘호	22명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상'을 놀이체험을 통해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굳어진 생각 속에 작은 틈을 만들어 보며 상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간 채우기 프로젝트	이윤미, 유은정, 안용세(2016 KCP 수료생)	15명 (초등 3~5학년 어린이)	「노잣돈 갓기 프로젝트」 김진희 작, 문학동네 (2015년) 이야기 구조의 흐름을 따라, 연극놀이와 연극적 기법을 통해 활동 안에서 스스로 묻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해봅니다.
	일상예술가와 함께하는 일상 그리기	최예지	17명	시선 끝에 내가 바라던 삶의 모습이 있다.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지, 그래서 내 일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그림으로 기록한다.

시간/장소	언더스탠드에비뉴 하트스탠드	
	ROOM A	ROOM B
10:00-10:30	등록 및 접수	
10:30-11:00		등록 및 접수
11:00-11:30	무무(舞無) 댄스 !!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베스볼튼)
11:30-12:00		
12:30-13:00	등록 및 접수	등록 및 접수
13:00-13:30		
13:30-14:00	공간 채우기 프로젝트	상상을 놀이하다
14:00-14:30		
14:30-15:00		
15:00-15:30		
15:30-16:00		등록 및 접수
16:00-16:30		
16:30-17:00		일상 예술가와 함께하는 일상 그리기
17:00-17:30		
17:30-18:00		
18:00-18:30		



## 02 정례 프로그램



## 02-1 아르떼펠로우

<b>목적</b>	청년 예술가 및 기획자들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장과 프로그램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우수 기획자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급하기 위함.
<b>참가접수</b>	2017. 4. 11(화) ~ 5.10(수) / 55개 팀 신청
<b>서류심사</b>	2017. 5. 11(목) / 10개 팀 선정
<b>최종심사</b>	2017. 5. 26(금) / 5개 팀 선정
<b>전문가 컨설팅</b>	2017. 6~8월
<b>지원사업참여</b>	2017. 8~12월

**[최종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10개 팀의 프로그램 시연 및 최종 심사로 진행됨.

<b>장소</b>	블루스퀘어 카오스홀
<b>참석</b>	청년 예술가 및 기획자, 일반 시민 등 참관 130명

**[상장 수상팀]**

수상자	프로그램명
오랩	구석구석 속닥속닥 이야기 지도
쥐뿔	자서극 프로젝트
1cm	숲속꼭질 - 꼭꼭 숨어라, 우리 숲속 보일라~
모디	어제의 길, 오늘의 나, 내일의 별
스페이스바	창의 융합 오토마타 제작 프로그램



## 02-2 전국 대학(원)생 문화예술교육 논문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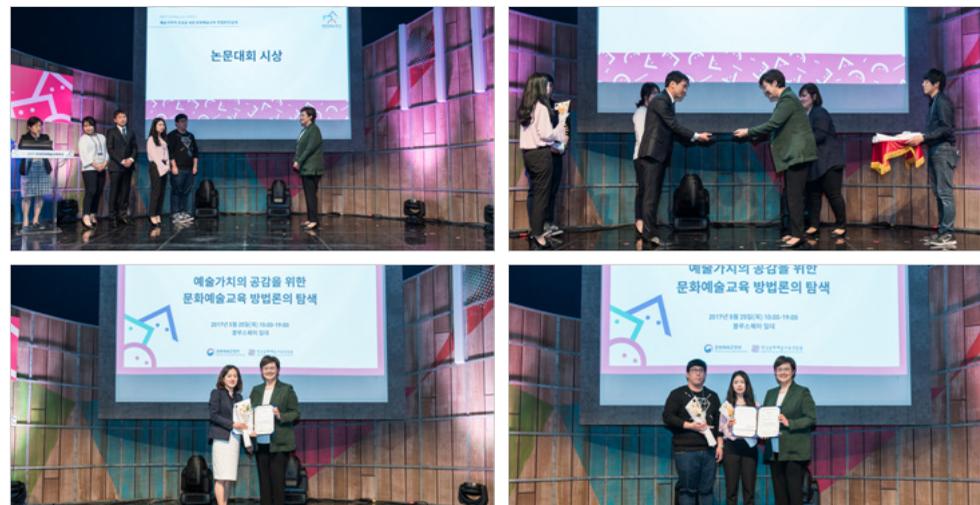
목적	미래 문화예술교육을 이끌어 갈 문화예술 분야 대학(원)생들에게 연구 결과물의 발표 및 공유 기회를 제공하고 학문적 성취 및 성과 확산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의 탐구와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논문 접수	3.27(월) ~ 5.10(수)
1차 심사	5.12(금) ~ 5.17(수)
2차 심사	5.20(토)
전문가 컨설팅	6.21(수)
자료집 제작	8월

### [시상식]

일시 2017. 5. 25(목) 18:40  
장소 블루스퀘어 카오스홀

### 심사 결과

시상구분	수상자	논문명
우수상	유지선	영화수업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에 관한 사례 연구
장려상	박부원, 이승정	지역문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과 문화예술교육 강화 방안
장려상	손소희, 김희준	혼합현실(MR) 기술 기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세대 간 갈등 해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안



## 02-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서포터즈

참가접수	2017. 5. 13(토) ~ 5. 18(목) / 31명 신청
오리엔테이션	2017. 5. 22(월) / 10명 선정
활동내용	주간행사 현장 운영 - 주간행사 공식 프로그램(국제심포지엄, 컨퍼런스, 워크숍) 현장 운영 및 진행 보조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전시 해설 등  주간행사 기자단 - 기관 SNS,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용 기록사진, 영상 촬영 - 프로그램별 모니터링 및 기록 등
서포터즈	김이연, 김희선, 박소정, 박소현, 박채연, 조민희, 차은주, 홍민지, 허주원



###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관을 지지하는 예술강사의 소감

개인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 시킬 방법은 있다. '충격과 피 흘린 죽음의 장면들이 힘없는 어린아이들 눈앞에서 벌어졌다.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고 타인은 물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없었다. 되는대로 살아야 하는 삶은 병들어갔다. 칼과 총으로 주변을 해하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했다. 그런 곳에 기쁨과 행복은 없어 보였다. 우선 영혼이 담긴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고 싶었다.' 이것은 콜롬비아 내전 당시 '몸의학교(EI Colegio del Cuerpo)'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교육을 시작한 알베로 레스트레포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누구의 삶이든 위태로운 순간은 있다. 대상 없는 미움이 커져갈 수록 크고 작은 폭력의 형태가 생겨나고 단절과 불통으로 사회에 표출된다. 피해는 늘 약자의 몫이고 누구나 약자의 순간에 있을 수 있다. 순간 순간의 일상에서 평범한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의 경험은 다양하다. 몸에서 비롯된 춤과 연극, 음악과 노래, 악기 연주, 글쓰기, 목공, 그림과 공예 등 체험의 세계에 몰입하는 시간은 생각을 만들고 마음을 움직이는 스위치가 되고 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잊고 있던 몸과 마음,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방법의 길로 가야 할 때이다.



허주원

# 03 지역 프로그램

**주제** 문화예술교육 신념과 상상, 기쁨을 말하다

**일시** 2017. 5. 26(금) 14:00~18:00  
2017. 5. 27(토) 10:30~12:00 신남전기 / 13:30~15:00 ME WE

**장소** 아시아문화전당(광주)

**참석** 예술가, 예술강사, 예술교육자 등 매개자 및 일반시민 총 115명

**주요 내용**

일자	프로그램명	분야	운영강사	소속
5. 27 (금)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삶을 위한 춤 - 몸의 창의적 언어와 감각 이해하기'	무용	알바토레스트레포	몸의학교
	나의 조각 우리의 작품: ME WE	미술	구수현 외 2명	
5. 27 (토)	프로젝션 맵핑 아트 처럼 사고하기	미디어 아트	신규빈 외 1명	신남전기



지역	일정	프로그램명	장소	참여대상	참여인원
	5.27(토) 10:00~18:00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문화예술 명예교사 프로그램, 2017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일반시민	108명
서울	5.27(토) ~28(일)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로 놀장'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 광장	아동·청소년, 가족 등	3,547명
	5.27(토) 13:00~18:10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2017 한국문화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일반시민	122명
세종	5.26(금) 14:00~17:00	세종문화예술교육 포럼	세종시문화재단 대회의실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및 단체, 기관 담당자	58명
	5.27(토) 11:00~17:00	세종문화예술교육 현장 체험 프로그램	세종호수공원 중앙광장 일원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기관 담당자, 일반시민	4,500명
경북	5.23(화) 14:00~19:00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창원대학교 NH인문홀	예술가 및 창원대학교 학생, 일반시민	350명
	5.23(화)	경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단체 워크숍 '아이디어가 꽃피다'	블루닷 (경북 칠곡군)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및 단체	50명
제주	5.21(일) 11:00~16:00	'꿈다락! 노는게 예술이네~'	(구)제주영화문화 예술센터 광장	일반도민	200명

# 04

## 한국-영국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목적** 2017-2018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영국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국가 간 문화예술교육 및 창의학습의 정책과 맥락 등에 대한 상호 이해와 논의를 통해 자국 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시사점 검토
- 내용** 한-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 간 라운드테이블 개최(2회)

**주요 내용**

일정	Roundtable 1		Roundtable 2
	5월 23일(화) 09:00~17: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회의실		5월 26일(금) 09:00~17: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회의실
<b>주제 (Theme)</b>	파트너십 (Partnership)	정체성 (Teacher & learner identity)	평가 (Evaluation and impact measurement)
<b>목적 (Challenge)</b>	지속발전하는 예술·창의 교육에 대하여 고민하는 문화 단체와 교육기관 간의 협력 구축 방안 논의	아티스트 이미지 안에서의 예술교육자와 학습자의 역할 재정립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간의(교사, 예술가, 정책입안자 등) 문화학습에 대한 성과 도출 및 측정 방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방안



# 05

## 전시

- 주제** KACES Cabinet
- 일시** 2017. 5. 24(수)~26(금)
-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블루스퀘어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Welcome cabinet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메시지 나열
Ready cabinet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기념품 증정
Archive cabinet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개 및 아르떼365 기사 활용 셀프자료집 제작
Media cabinet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소개 및 포스터 전시



# 05 전시

## Welcome cabinet



## Ready cab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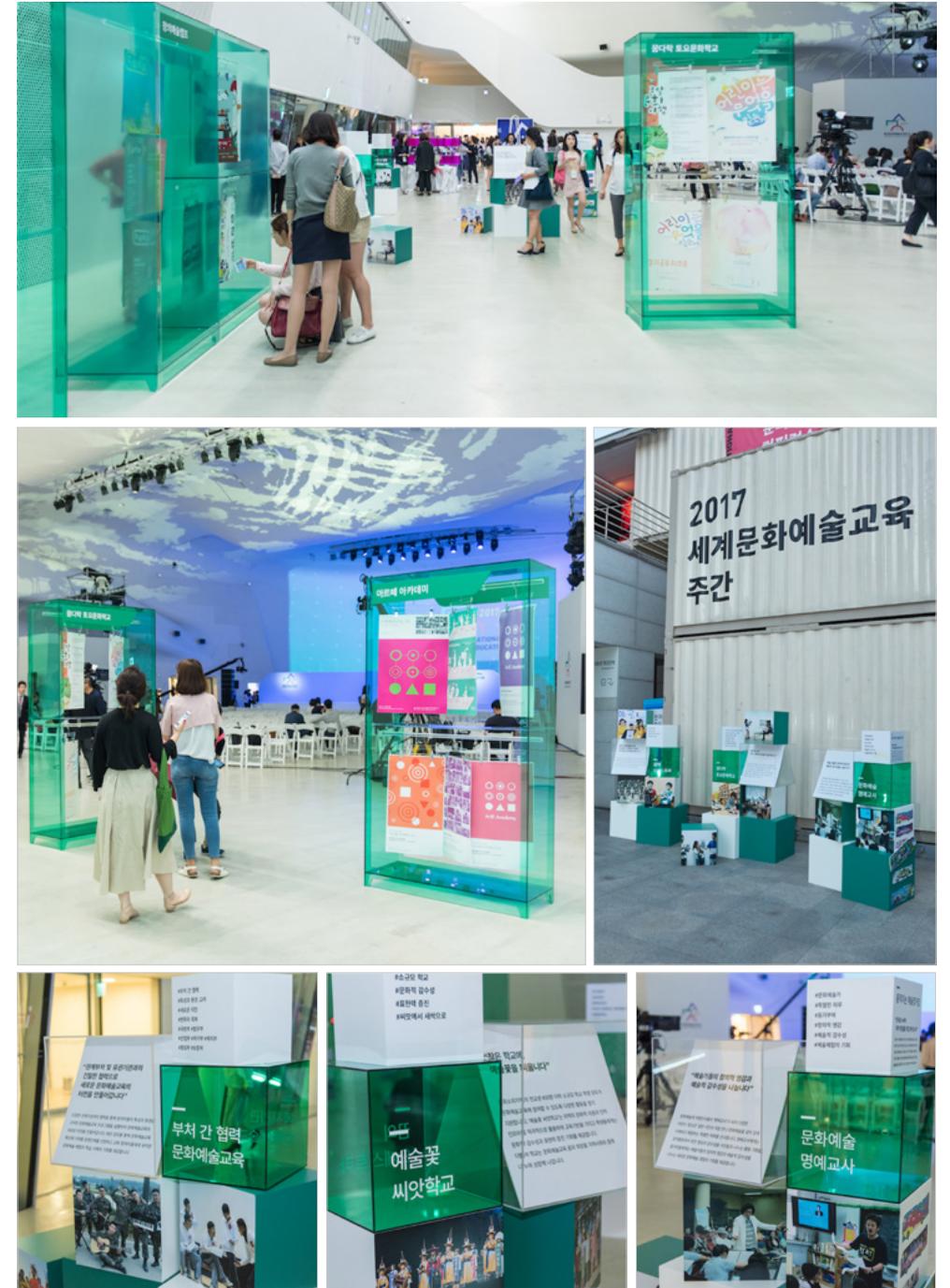


# 05 전시

### Archive cabinet



### Media cabinet



4.

대외홍보







# 01 언론 홍보

## 방송 보도

KTV 2017. 5. 24



모닝와이드3부 2017. 5. 29



## 사진 보도

뉴스시스 2017. 5. 24



연합뉴스 2017. 5. 26



연합뉴스 2017. 5. 27



뉴스1 2017. 5. 27



# 02 온라인 홍보

## SNS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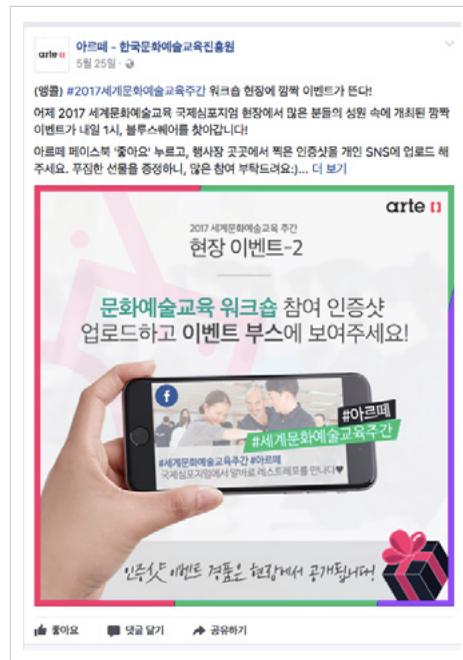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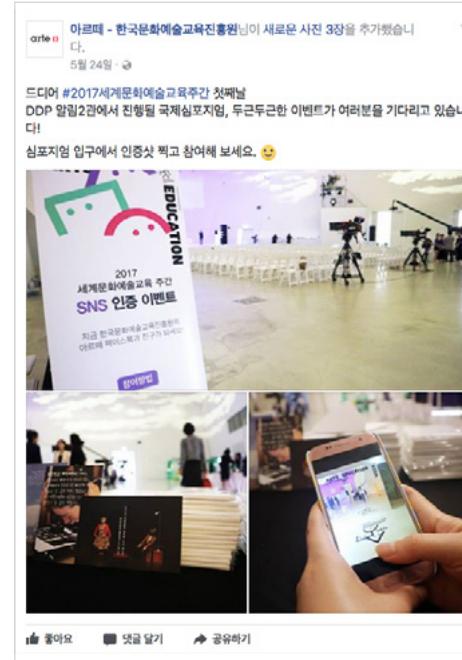
분류	구분	게재건수
사전	행사 소개, 프로그램 참석자 모집 공고 중심	14
행사중	행사 현장 영상/사진, SNS 이벤트 진행 등	5
사후	행사 리뷰, 현장 에피소드 중심	4
총계		23

기관 페이스북 채널을 활용하여 현장사진, 라이브방송, 스케치 영상, 참여 이벤트 등의 다양하고 친근감 있는 콘텐츠를 게시해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총 23건(사전 14건, 행사 중 5건, 사후 4건)의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반응을 및 도달률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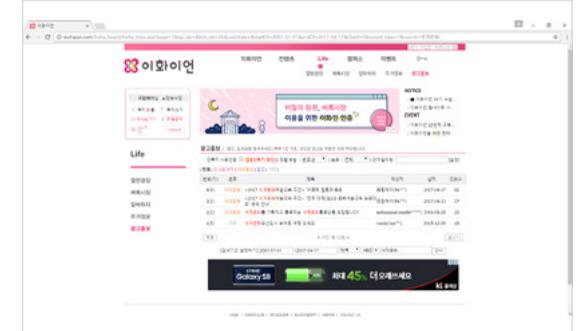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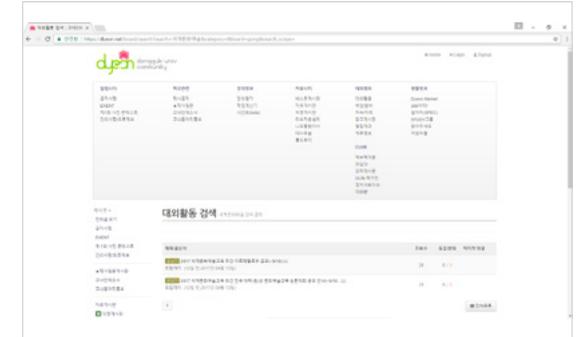
## 카드뉴스



# 02 온라인 홍보



## 문화예술 관련학과 보유 대학교 게시판



# 02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

## 메인화면

2017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프로그램 소개 오시는 길

# ARTS EDUCATION WEEK

##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5.24 (수) - 5.27 (토)

5.24 (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DOP) 발원지  
5.25 (목) 불후스퀘어 일대  
5.26 (금) - 27 (토) 전 지역 문화거점시설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소개 더 알아보기 >

매년 5월 넷째 주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입니다.  
The fourth week of May every year is 'World Cultural Arts Education Week'.  
한국정부와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한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학-의 성공 계획을 기반으로 유네스코 총회에서 매년 5월 넷째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전문가, 관계자들의 논의의 장이 펼쳐집니다.  
From the year 2012 onwards, every fourth week of May, there will be a variety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programs and discussions by experts and experts in the fields of arts and culture, which can be easily enjoyed and enjoyed by all over the country.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프로그램 더 알아보기 >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2017년 5월 24일(수) 14:00 - 18:00 불후스퀘어 일대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  
2017년 5월 25일(목) 14:00 - 18:00 불후스퀘어 일대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2017년 5월 26일(금) - 27일(토) 11:00 - 18:00 불후스퀘어 일대

2017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더 보기 >

2017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 더 보기 >

2017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더 보기 >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서포터즈 참가신청  
아르떼 헬로우 공모  
전국 대학(원)생 문화예술교육 논문대회 공모 안내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서포터즈 참가신청 더 보기 >

아르떼 헬로우 공모 더 보기 >

전국 대학(원)생 문화예술교육 논문대회 공모 안내 더 보기 >

## 스팟영상

## 스팟영상 A

## 스팟영상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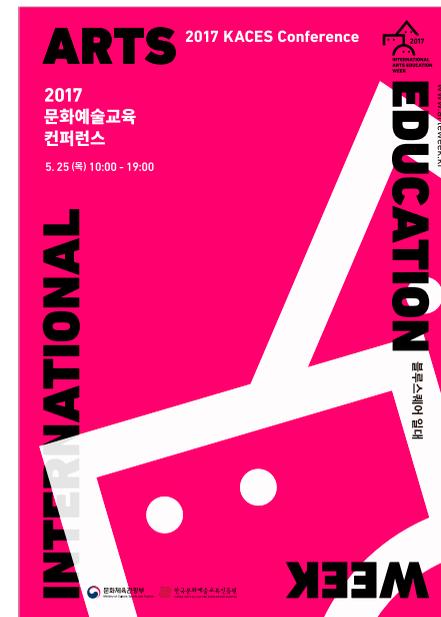
## 02 온라인 홍보

### 젊은 예술가 영상인터뷰



## 03 오프라인 홍보

### 포스터



# 03 오프라인 홍보

## 초청장



## 프로그램북



## 리플릿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주요 개최 장소**

1. 서울문화재단(서울시) 별관 5층 507호 231

2. 서울문화재단(서울시) 별관 5층 507호 234

3. 경희대(경기도) 100호 101

4. 서울대(서울시) 100호 101

5. 중앙대(서울시) 100호 101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5.24(화) - 5.27(금)

오늘 미술 하면 문화예술교육, 그 중심에서 가치를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추구하는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펼치고자 마련한 많은 사례 사례는 예술교육 발전의 토양을 갈아엎고, 2017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서울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주에 서울 문화예술교육주간이 개최된다는 사실에 대해 서울 문화예술교육주간을 소개하는 리플릿을 소개합니다.

특히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서는 예술 분야의 핵심으로 서울 문화재단 5층 별관 507호 231호에서 5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월 25일 오후 1시 30분까지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소개하는 리플릿을 소개합니다.

**5/24(화) 13:00-18:00**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5/25(수) 13:00-19:00**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컨퍼런스

**5/26(목) 13:00-18:00**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워크숍

**5/27(금) 13:00-18:00**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지역 프로그램

시간	내용	장소	문의
13:00-14:00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서울문화재단(서울시) 별관 5층 507호 231	02-2610-1111
13:00-19:00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컨퍼런스	서울문화재단(서울시) 별관 5층 507호 231	02-2610-1111
13:00-18:00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워크숍	서울문화재단(서울시) 별관 5층 507호 231	02-2610-1111
13:00-18:00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지역 프로그램	서울문화재단(서울시) 별관 5층 507호 231	02-2610-1111

## 컨퍼런스 자료집



# 03 오프라인 홍보

## 기념품 키트



에코백 3종



노트 3종 + 볼펜 + 종이홀더



## 중구청 가로등 배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일대



## 공공게시대



## 거리 현수막



다산로



동대문역사박물관역 15번 출구



신당역



성동여실

# 03 오프라인 홍보

## 문화예술 관련학과 보유 대학(원)교 게시판

\*44개교 게시



서울예술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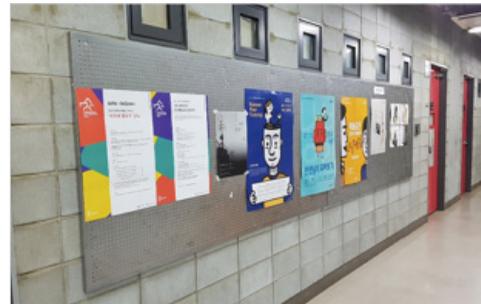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양대학교



용인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인천대학교



#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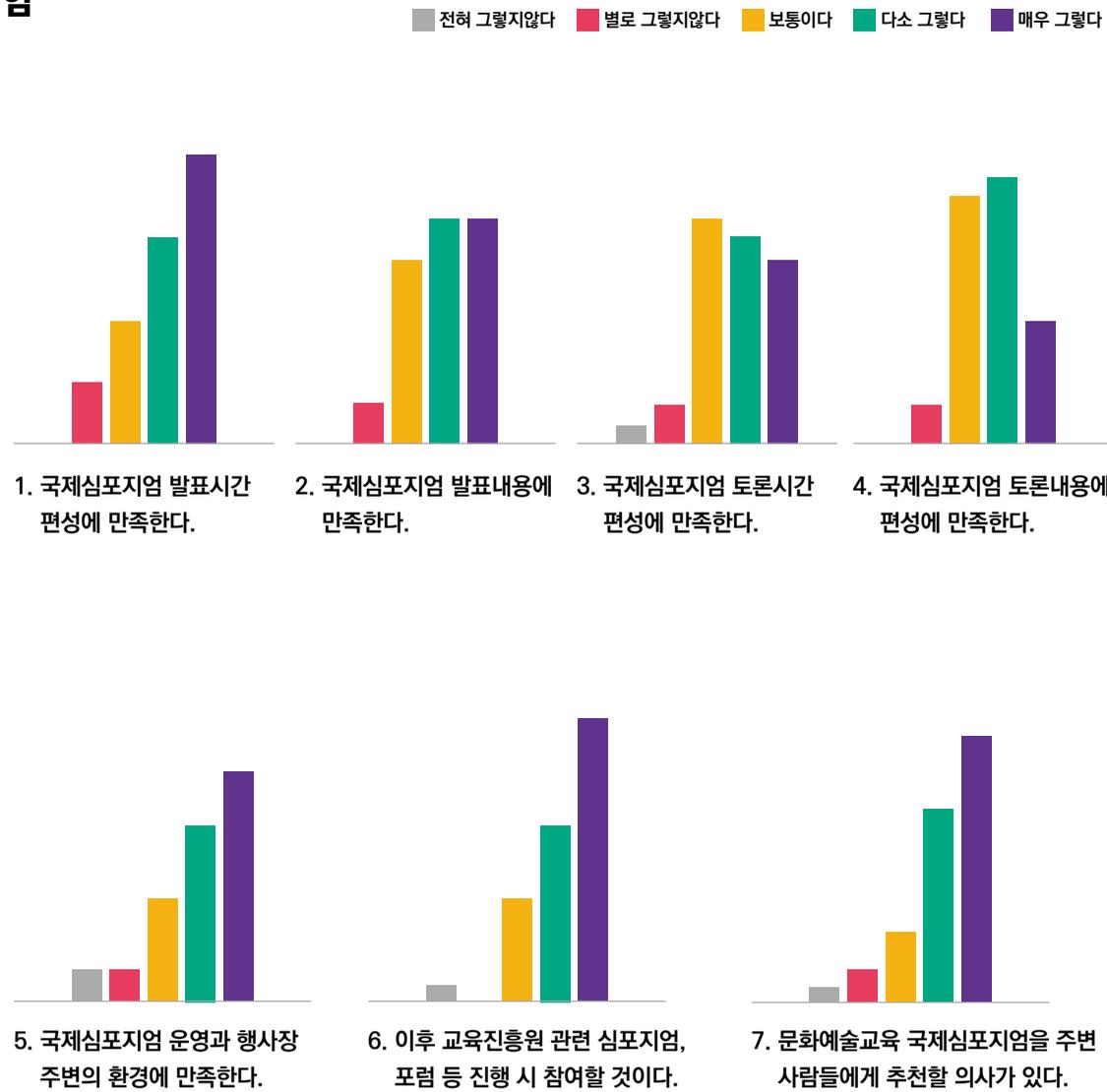
##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 
01. 설문조사 결과
  02. 서포터즈 활동후기
  03. 참여하신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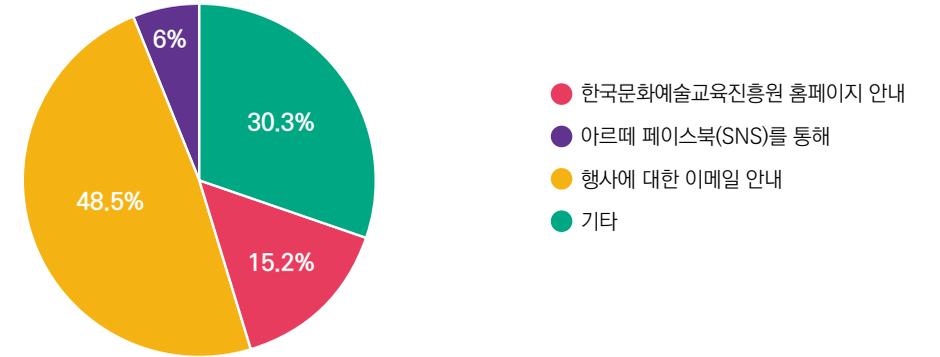


# 01 설문조사 결과

##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 참여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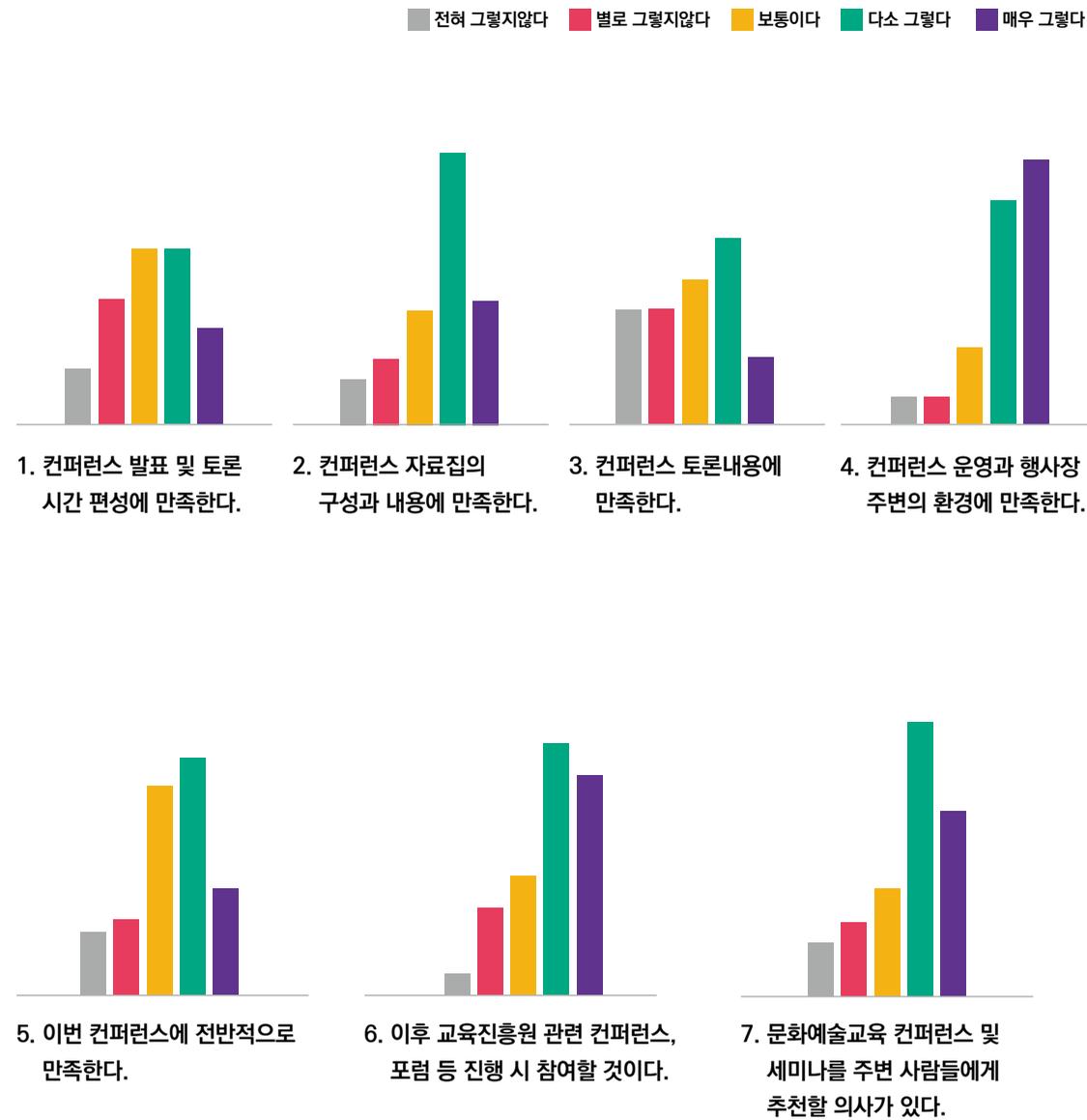


## 설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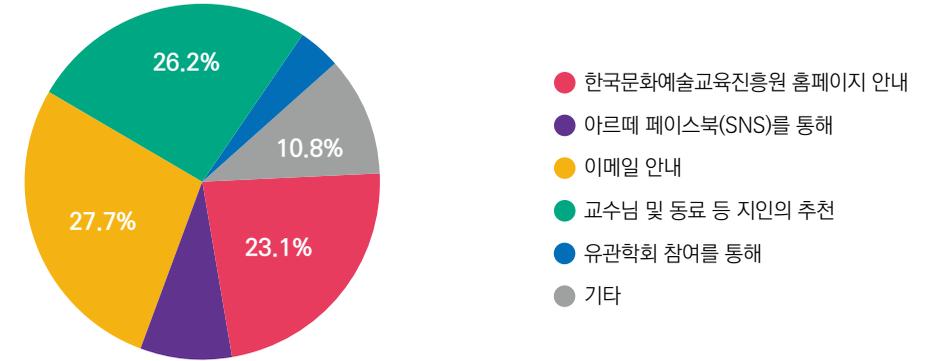
	<p>심포지엄 동시통역 제공과 깔끔한 행사장 분위기, 강연자의 정확한 시간 지킴, 다양한 안내 책자 제공이 좋았다.</p> <p>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 시간 후반의 자유로운 설전이 좋았다 ('예술' 교육인가 '예술'교육인가, 교육자의 자질 등)</p> <p>예술교육가로서 갖고 있어야 하는 신념, 덕목에 대한 설명이 좋았다.</p> <p>자유로운 공간과 발제자들의 자신감 있는 발언이 좋았다.</p> <p>예술교육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실천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였다.</p> <p>토론시간이 발제 내용에 대해 더 고민할 수 있도록 대화가 이어졌다.</p> <p>한 장소에서 다양한 국가의 국내외 예술가, 각기 다른 장르 아티스트들의 생각을 보고 들을 수 있어 좋았다.</p> <p>발제자들이 이론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모형과 사례를 직접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고 도움이 많이 됐다.</p>
참여소감	<p>행사 전, 참가자들에게 발제자들의 발표주제에 대한 질문거리를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p> <p>초대된 국제인사 한 명, 한 명에 집중해서 국제교육의 상황과 교류 가능성, 인문교육 클래스를 열었으면 어땠을까?</p> <p>편성표에 안내된 시간은 오차 없이 진행되었으면 한다.</p>
제안사항	<p>객석과의 토론시간이 부족해 아쉬웠다.</p> <p>발표자 시간제한이 있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한 것 같다. 심포지엄도 간단한 워크숍이 있었으면 좋겠다.</p> <p>발제자를 소개하는 관련 자료가 부실했다고 생각한다.</p> <p>발제자별 시간 배정이 짧았고, 행사장소가 웅장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졌다.</p> <p>국내 문화예술교육 사례도 좀 더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다.</p>

# 01 설문조사 결과

##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



## 참여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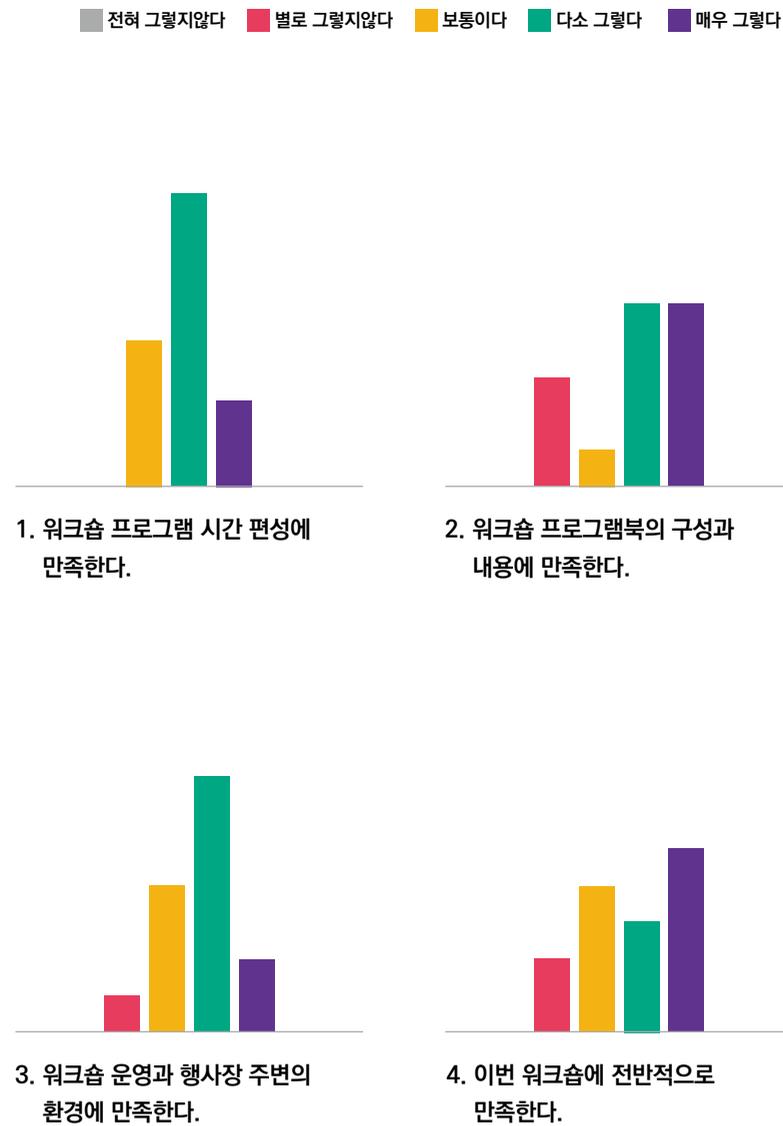


## 설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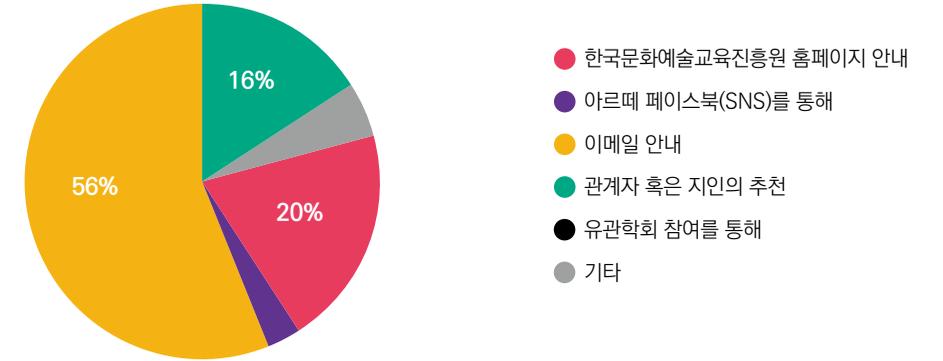
참여소감	국내외 다양한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블루스퀘어의 교통 편리성과 접근성이 좋았다.
	문화예술에 뜻이 있는 학자들이 발제자여서 좋았고, 쾌적한 강의환경, 진행요원 등 다른 것도 만족스러웠다.
	세부적으로 전문분야가 나누어져 있어서, 구체적으로 깊이 배울 수 있었다.
	주제별 세션을 직접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다.
	행사장 동선 안내가 잘 되어있고, 진행요원의 친절함이 좋았다.
	블루스퀘어의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된 점과 행사 중 제공된 다과가 맘에 들었다.
제안사항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계의 이슈와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
	컨퍼런스 주제 중 무용 부분이 빠져있어서 아쉬웠다.
	세션별 참여자 인원수 제한이 아쉬웠다.
	발제자의 시간 분배와 해당 세션에 적합한 발제자 섭외도 필요할 것 같다.
	참여자 가 원했던 주제를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행사장에서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주제를 보고 참여신청을 했는데 살짝 동떨어진 강의내용이 아쉬웠다.
	연구자(교수)의 발제와 필드에 있는 실무자의 생각 차이가 있었다.
세션별 장소가 각기 달라 내부 구조 이동이 불편했다.	
예술교육에서 예술은 없고, 교육 컨퍼런스 같아서 아쉬웠다.	

# 01 설문조사 결과

##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 참여경로



## 설문 조사 결과

Category	Comments
참여소감	아르떼 펠로우의 심사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한 점이 매우 특별했다.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콘텐츠를 체험해서 좋았다.
	배우, 음악가, 문학가 등 그들의 자유로운 발표가 맘에 들었다.
	국내 문화예술교육 추이와 흐름을 볼 수 있어 좋았다.
	예술의 새로운 소재발견과 접근이 신선했다.
	아르떼펠로우 시연 무대를 직접 볼 수 있어 좋았다.
제안사항	인지와 비인지를 체험하는 워크숍이 좋았다.
	쌓인 피로감들이 힐링되는 시간이었다.
	참가자 간 네트워크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자료 배포가 많았으면 좋겠다
	워크숍 기간에는 현장체험 부스를 열어두었으면 좋겠다.
	입문 단계의 교육 내용 같아 아쉬웠다.
	시연 프로그램에 적합한 장소가 준비되면 좋겠다.
	워크숍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
	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취지에 맞게 소통할 수 있는 구성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일반인과 대중을 위한 볼거리가 없는 점이 아쉬웠다.

## 02 서포터즈

김이연 김희선 박소정 박소현 박채연 조민희 차은주 홍민지 허주원



### 서포터즈 활동 후기

개인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 시킬 방법은 있다. '충격과 피 흘린 죽음의 장면들이 힘없는 어린아이들 눈앞에서 벌어졌다.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고 타인은 물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없었다. 되는대로 살아야 하는 삶은 병들어갔다. 칼과 총으로 주변을 해하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했다. 그런 곳에 기쁨과 행복은 없어 보였다. 우선 영혼이 담긴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고 싶었다.' 이것은 콜롬비아 내전 당시 '몸의학교(EI Colegio del Cuerpo)'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교육을 시작한 알베로 레스트레포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누구의 삶이든 위태로운 순간은 있다. 대상 없는 미움이 커져갈 수록 크고 작은 폭력의 형태가 생겨나고 단절과 불통으로 사회에 표출된다. 피해는 늘 약자의 몫이고 누구나 약자의 순간에 있을 수 있다. 순간 순간의 일상에서 평범한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의 경험은 다양하다. 몸에서 비롯된 춤과 연극, 음악과 노래, 악기 연주, 글쓰기, 목공, 그림과 공예 등 체험의 세계에 몰입하는 시간은 생각을 만들고 마음을 움직이는 스위치가 되고 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잊고 있던 몸과 마음,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방법의 길로 가야 할 때이다.

허주원

## 03 참여하신 분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무대행 제1차관 송수근  
 예술정책관 이영열 국장  
 문화예술교육과 강연경 과장, 조상훈 서기관, 나서경 서기관, 변성호 주무관, 김현종 주무관, 김준환 주무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주성혜

**콘텐츠개발팀**  
 총괄 김세린 본부장  
 실무총괄 김자현 팀장  
 실무 박정연 대리, 양혜진 주임, 김가영 주임, 전아름 주임, 한미소 주임, 김현기 주임, 고서영 인턴, 임아진 인턴

**대외협력팀**  
 실무총괄 김자현 팀장  
 실무 정다워 주임, 장애란 주임, 이현정 주임, 고아라 주임, 이현민 주임, 한세린 인턴

**정책연구팀**  
 실무총괄 홍유진 팀장  
 실무 박진아 주임, 소지영 주임, 이상희 주임, 송효원 주임, 한지희 주임, 박세진 인턴

**행사 총괄 대행**  
 총괄 운영 (주)프럼에이

**언론 홍보**  
 (주)프레인글로벌

**서포터즈**  
 김이연, 김희선, 박소정, 박소현, 박채연, 조민희, 차은주, 홍민지, 허주원

**방송 중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03 참여하신 분들

## 공식 프로그램

### 2017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b>오프닝스피치</b>	부이 아이 응웻(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참여 학생)
<b>발제자</b>	알바로 레스트레포(콜롬비아 몸의학교 설립자 교장), 리카르도 부스타멘테(콜롬비아 몸의학교 무용단 소속 무용수/보조출연) 천정명(사다리연극놀이아카데미 교감), 베스 볼튼(템플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
<b>토론자</b>	제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겸임교수), 노주희 (한국오디에이션교육연구소 대표), 김병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교수), 김세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교육기반본부장)

### 2017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

<b>기조연설</b>	주성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b>특별강연</b>	박지영(법무법인(유한) 정진 변호사, <피아노 치는 변호사> 저자)

### 주제 별 토론

#### 한국연극교육학회

<b>사회자</b>	조혜정(중앙대학교)
<b>좌장</b>	김대현(호서대학교)
<b>발제자</b>	임형택(극단 서울공장), 최지영(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교육대학교)
<b>토론자</b>	김인준(국민대학교), 박근수(인천대학교), 표원섭 (청주대학교), 강양은(청운대학교)

#### 한국연기예술학회

<b>좌장</b>	안재범(계명대학교)
<b>발제자</b>	손봉희(세명대학교), 박진태(여주대학교)
<b>토론자</b>	이영란(경희대학교), 신대식(상명대학교), 오진호(상명대학교), 송갑석(강원대학교)

#### 한국영화교육학회

<b>사회자</b>	조혜정(중앙대학교)
<b>좌장</b>	김대현(호서대학교)
<b>발제자</b>	임형택(극단 서울공장), 최지영(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교육대학교)
<b>토론자</b>	김인준(국민대학교), 박근수(인천대학교), 표원섭 (청주대학교), 강양은(청운대학교)

####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b>발제자</b>	박정애(공주교육대학교), 이부연(한양대학교)
<b>토론자</b>	이민정(공주교육대학교), 고흥규(홍익대학교)

#### 한국문화교육학회

<b>사회자</b>	김향미(숙명여자대학교)
<b>발제자</b>	최해경(경기도미술관)
<b>토론자</b>	김혜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사진교육학회

<b>발제자</b>	한경은(아티스트, 아트 테라피스트)
<b>토론자</b>	신승녀(수원푸른교실&미술치료연구소)

#### 한국예술교육학회

<b>사회자</b>	김형숙(인하대학교)
<b>발제자</b>	홍후조(고려대학교), 이지연(조선대학교)
<b>토론자</b>	김미숙(상명대학교), 고은실(서울대학교)

#### 한국음악교육학회

<b>사회자</b>	주대창(광주교육대학교)
<b>발제자</b>	장근주(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영미(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지원(나사렛대학교)
<b>토론자</b>	조성기(공주대학교), 정완규(중앙대학교), 김지현(조선대학교)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b>사회자</b>	오세곤(순천향대학교)
<b>발제자</b>	조흥기(코다이문화예술교육연구소), 성민정(경희대학교), 오세준(성균관대학교)
<b>토론자</b>	최영익(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 임성민(성균관대학교), 이송하(문화예술교육 기획자)

#### 한국조형교육학회

<b>사회자</b>	이지연(한국교원대학교)
<b>발제자</b>	최성희(홍익대학교), 이미정(한국교원대학교), 안지연(서울대학교)
<b>토론자</b>	고황경(부천북여자중학교), 류지영(춘천교육대학교), 강주희(목원대학교)

# 03 참여하신 분들

## 2017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해외전문가	베스 볼튼(템플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
초청워크숍	노주희(한국오디에이션교육연구소 대표)
자문	곳간 채우기 프로젝트 - 김선(사다리연극놀이아카데미 교장)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만나기- 신선영, 김정현 곳간 채우기 프로젝트 - 이윤미, 유은정, 안용세 너에게 썸표를 줄게 - 윤동희 음악노트 (Musicnote) - 이의정 나무작업, 나무에 흐르는 시간 - 남머루 나의 조각, 우리의 작품: ME WE - 구수현, 김채린 빛나는 초상화 - 전현구, 김태훈(시네버스)

## 지역 프로그램

### 서울 시민참여 프로그램

해외전문가	베스 볼튼(템플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
초청워크숍	노주희(한국오디에이션교육연구소 대표)
문화예술	무무(舞無) 댄스!! - 안은미(현대무용가)
명예교사 프로그램	상상을 놀이하다 - 왕춘호(디자이너)
자문	곳간 채우기 프로젝트 - 김선 (사다리연극놀이아카데미 교장)
2017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곳간 채우기 프로젝트 - 이윤지, 유은정, 안용세 일상예술가와 함께하는 일상 그리기 - 최예지

###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계 프로그램

총괄·실무	정선희(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문위원) 아시아문화원 허재균(아시아문화원 어린이사업부 팀장) 김대용(아시아문화원 어린이사업부)
해외전문가	알바로 레스트레포(콜롬비아 몸의학교 설립자·교장)
초청워크숍	리카르도 부스타멘테(콜롬비아 몸의학교 무용단 소속 무용수)
2017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프로젝션 맵핑처럼 사고하기 - 신남전기 나의 조각, 우리의 작품: ME WE - 구수현, 김채린, 김현지

## 아르떼 펠로우

참여자	김단화 커뮤니티 빌더스(조혜리안, 정지슬, 김대유) 쥐뿔(안보경, 서혜정), 1cm(심은혜, 양경애) 모디(박정은, 이현정), 아토노미(강미경, 김대경) 잇-다(박혜은, 김민주, 정지민) Global Dream Providers(이연성, 오준식) 오랩(유혜인, 소동호) 스페이스바(임도원, 강제욱, 하석준, 신기운, 송요비)
심사위원	이아람찬(목원대학교 TV·영상학부 교수) 현혜연(중부대학교 사전영상학과 교수) 박은주(前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본부장)

## 전국 대학(원)생 문화예술교육 논문대회

논문 수상자	유지선(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박부원(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이승정(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과정) 손소희(가톨릭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박사과정) 김희준(가톨릭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심사위원	김병주(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극과 교수) 김석범(수원대학교 문화예술학부 교수) 김선아(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과 교수) 박은경(백석대학교 문화예술학부 교수) 백 령(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이재영(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임학순(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정진원(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 03 참여하신 분들

## 한국 영국 라운드테이블

### 영국 관계자

- 안나 커틀러('Tate' 학습 책임자)
- 리지 크럼프('Cultural Learning Alliance' 책임자)
- 스티브 모티프('A New Direction' 책임자)
- 로드 스킵('Creative Scotland' 창의 학습 책임자)
- 조안 파('Creative Scotland' 창의 학습 책임자)
- 데이브 스트러드워('Phymouth School of Creative Arts' 교장)
- 마크 롬더스버('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창의 학습 및 발달 부책임자)
- 찰리 팀스('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예술 및 문화 학습 분야 전문 연구원)
- 캐시 그라함('런던 영국문화원' 음악감독)

### 한국 관계자

- 제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겸임교수)
- 최보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박소연 (안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황지영 (국립현대미술관 문화교육과 학예연구사)
- 류해석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 장학사)



##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결과보고서

---

### 발행정보

**발행인** 주성혜  
**발행일** 2017. 9  
**기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콘텐츠개발팀  
**홈페이지** [www.arte.or.kr](http://www.arte.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ww.arteweek.kr](http://www.arteweek.kr)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웹진** [www.arte365.kr](http://www.arte365.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rtejockey](http://www.facebook.com/artejockey)  
**문의** 02-6209-5900  
**고유번호** KACES-1751-C002  
**ISBN** 978-89-6748-217-6 (9337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저작자와 출처등을 표시하면 자유 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SBN 978-89-6748-217-6